

EASY FUN LOVE

큐원 홈메이드

홈 베이커리를 더 쉽게, 즐겁게
엄마의 사랑을 담아 더 맛있게!

만들기 쉬우니까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맛은 더 건강하니까
매일매일 자랑하고 싶은
우리가족 간식, 큐원 홈메이드



겉은바삭 속은쫄깃, 스페인 정통 추러스의 맛!



인도 전문 레스토랑에서 즐기던 담백한 맛!



16가지 곡물분말로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맛!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筆巖書院 山仰會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제호 글씨 朴秉濠

— 제32호 목차 —

하서 김인후의 도학정신 위에 지은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다	2
김재수(본회 편집주간)	
하서河西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연구를 위한 발제發題	4
김장수(동양문화학회)	
김인후와 기대승의 황룡강변 소재 시詩 고찰	16
탁현숙(조선대학교)	
유학전통儒學傳統의 계승繼承과 유림儒林의 역할役割	34
오세인(전 광주고검장)	
필암서원·산양회 소식	40

— 알림 —

1. 방명록에 새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회 강연회나 필암서원 춘추향제에 나오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는 3만 원이며, 연 회비는 4만 원입니다.
- 전화로 신규가입을 신청하실 경우 (사)필암서원산양회 계좌(농협 301-0093-8931-91)로 입회비 3만 원을 입금하시고 김재수(010-2705-6395)에게 전화나 문자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① 성명(한문) ② 본관 ③ 아호(한문)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전화번호(주택, 휴대폰)
 - ⑦ 현직 또는 경력

하서 김인후의 도학정신 위에 지은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다

김재수(본회 편집주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 필암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9개 서원이 7월 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현지 실사 보고서를 근거로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췄다고 높게 평가했다. 세계유산은 훼손 위기의 유형유산 보호에 목적을 두고 국내적 중요성보다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私學) 교육의 전형이다. 위대한 인물의 정신 위에 세워진 조선의 인문학당인 것이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특유의 공간 유형과 건축양식을 보유하고 있다. 제향의례 강학 등 서원 본연의 기능을 오늘날까지 유지한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다. 선비들의 집회와 토론의 장소였으며, 서적의 간행과 유통 확산의 중심 역할을 했다. 특히 제향의식은 50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동아시아 서원 유산 중 가장 완벽한 형태로 재현되어 왔다.

필암서원은 평지에 배치되어 외부에서는 내부의 공간구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필암서원 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각과 강당이 남쪽을 바라보는 듯하지만 공간적으로 사당(우동사(祐東祠))을 향해 열려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인후 선생이 평소 주창한 예의공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확연루는 들판을 바라보는 듯하지만 공간적으로는 사당 우동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강당 청절당은 마당을 두고 사당으로 대청마루를 열어 존경을 표하고 있다.

이와같이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이념이 투영된 공간으로 특유의 건축 정형성을 갖췄다. 서원이 향교나 성균관과 변별되는 점은 제향자의 정신을 구현한 공간에서 선현들의 삶과 사상을 배우고 체험한다는 것이다. 한국 서원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되는 것은 ‘정신 위에 지은 공간’의 가치가 그만큼

깊고 넓다는 의미다.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은 전국 600여 개의 서원 중에서도 제향자의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된 곳이다. 『정신위에 지은 공간, 한국의 서원』을 지은 김희곤 씨는 “한국의 서원은 우리 민족의 열정으로 피워낸 꽃봉오리”라고 단언한다. 하나같이 암울한 시대에 민족의 방향을 제시한 선각자들의 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서원은 중국 백록동서원을 모델로 삼아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했다. 그 예로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꼽는다. 선현의 삶을 공간에 녹여낸 서원은 각기 다른 건축 구조와 공간배치를 보인다. 경상도 서원은

산자락에 기대 있으나 전라도와 충청도는 산이 끝나고 들이 시작되는 길목에 위치한다. 풍광이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한다는 사상은 동일하다. 다른 무엇보다 한국의 서원은 자기 자신을 찾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의 공간이다.

전남도는 이번 세계유산 등재 기념으로 문화재청, 장성군, 필암서원과 협의해 등재 선포식, 강연회, 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인(仁)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 중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심미적 감성이며, 그것이 가장 배양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는 말한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란 인(仁)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 인을 배양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바로 이 ‘중용’이라는 책의 언어를 구성하고 있다. 과학문명에 뒤떨어져서 허덕여야만 했던 20세기 우리 민족의 과제가 “이성의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성의 교육을 통섭하는 새로운 “인성의 교육”의 세기를 열어야 한다. “인성의 교육”을 입버릇처럼 뇌까리면서 “중용”을 도외시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21세기 우리민족의 역사와 인류의 미래를 관망하는 나의 심정에는 이 “중용”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

— 도올 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85쪽에 인용함

하서河西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연구를 위한 발제發題

김장수(동양문헌학회 회장)

들어가는 말

지난 7월 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진행 중인 올해 제 43차 회의에서 “한국의 서원 아홉 곳”을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하서성리학 이론은 우리나라 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서선생께서 남기신 문헌의 정신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당시 이항李恒과 기대승奇大升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태극음양설에 대하여, 그는 이기理氣는 혼합되어 있으므로 태극이 음양을 떠나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道와 기器의 구분은 분명하므로 태극과 음양은 일물一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항의 태극음양일물설太極陰陽一物說을 반대한 기대승에 동조하였고 또한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은 모두 그 동처動處를 두고 이른 말임을 주장함으로써, 후일 기대승의 주정설主情說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수양론에 있어서는 성

경誠敬을 주된 목표로 삼았고, 노수신盧守愼과 함께 속흥야매잠해夙興夜寐箴解를 논하면서 마음이 일신을 주재하지만 기氣가 섞여서 마음을 밖으로 잃게 되면 주재자를 잃게 되므로, 경敬으로써 이를 바르게 해야 다시금 마음이 일신을 주재할 수 있게 된다는 ‘주경설主敬說’을 주장하여 후일 정조대왕으로부터 성리 논변을 인정받았다.

본고에서는 하서문집의 편찬 경위를 먼저 살펴본 후 일실된 “서명사천도”의 내용을 하서천명도와 북송 장횡거와 서명 원문의 내용을, 하서선생과 당시 유현과 왕래한 문헌 등을 대략 살펴보고 외람되게 발문을 쓰는 심정으로 유추하여 발제하고자 합니다.

하서문집의 편찬 경위

하서 선생의 큰사위 되는 월계 조 희문(함안인 문과 1566. 9 장흥부사 역임)의 하서선생전집 구서舊序에 의하면 하서선생께서 서세하신 1560년부터 선생의 유고를 아들 김종호

金從虎가 구송口誦한 시 수백여 수와 문인 노적廬適, 기효간奇孝諫, 변성온卞成溫 등이 수집해 온 글을 포함 8년간 수집하여 글씨 잘 쓴 옥봉 백광훈이 초서抄書하고 양 자징 신각이 교정 및 간역刊役을 맡아 전라 감사 송찬宋贊의 협조로 발간을 보았으나,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과 일부 시서詩書는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고 적고 있다.

1568년에 간행하였을 당시 여러 문인門人들에게 산재散在되어 있어서 미처 수집하지 못한 유문은 별집別集으로 간행하기를 기약하고 있었다. 『초간본』은 부사臧辭 1권, 시詩 12권, 잡저雜著 2권으로 편찬되었으며, 월계 조희문趙希文의 서序가 들어 있다. 완문完本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고려대학교 만송문고晩松文庫에 권3~6까지의 명본零本 2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 뒤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하서선생의 현손 김시서金時瑞, 외증손 이실지李實之 등과 함께 문집 중간重刊을 도모하여,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의 편집을 거쳐 초간본에 부록附錄을 첨부하여 14권으로 재편하고 별집別集 9권을 추가하여 1686년 목판본으로 중간하였다. 중간본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서序와 박세채朴世采의 발跋이 첨부되었으며,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796년 하서선생이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었고 이듬해인 1797년에는 정조대왕正祖大王이 문집을 중간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후학들이 원집과 별집을 합해 문체별로 새롭게 편

집하고 증보하여 “하서전집河西全集”이라 이름 붙이고 김일주金日柱(나주, 경주인)가 정리한 년보年譜를 첨부하여, 원집 12권, 부록 4권으로 재편해서 1802년에 삼간三刊하였다.

1916년에는 후손 김노수金魯洙 등이 가장家藏된 유고와 다른 사람의 문집 가운데 전집全集에서 빠진 저자의 시문과 부록문자를 모아 모두를 1책으로 편찬해 속편續編을 간행하였다. 속편은 속편續編과 속편부록續編附錄으로 나뉘어 있고 연활자鉛活字로 간행되었는데, 1824년에 양석효梁錫孝가 지은 발문跋文이 첨부된 저자의 홍범수도洪範數圖가 실려 있으며, 끝에는 1916년에 후손 김정중金景中이 지은 발문跋文이 첨부되어 있다. 『속편초간본』은 현재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어 1938년에 이 속편을 김노수金魯洙가 증보하여 중편重編하고 후손 김길중金吉中 등이 김영한金甯漢의 발문을 받아 1940년에 2책의 목판본으로 중간重刊하였다. 『속편중간본』의 구성은 시詩 20여 수가 시체別詩體別로 수록되어 있고, 송정황宋庭篁에 대한 제문, 조숙경趙淑璟의 묘표墓表, 잡저雜著로 『홍범설시작괘도洪範撰著作卦圖』, 『예설습유禮說拾遺』가 실려 있으며, 부록에는 「홍재전서弘齋全書」에서 초록한 저자 관련 기사와 『호당수계록湖堂修契錄』, 『간집유사록刊集有司錄』이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위와 같이 문집 편찬 경위를 살펴보면 하

서선생의 문집이 3간판을 거치는 동안에도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주역 관상편 등은 수수菟受되지 못하고, 화재 소실 사항에 대하여도 육하六何의 구체성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횡거 장선생과 서명

횡거 장재張載(1020~1077)는 중국 송나라 시대의 사상가이다. 성리학의 기초를 닦았다. 자는 자후子厚이며, 봉상미현의 횡거진橫渠鎭 출신이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횡거선생橫渠先生이라고 호칭된다. 또한 존칭하여 장자張子라고 불린다.

그의 선조는 본래 대량(지금의 산시성 톈진현의 동북쪽)에서 살았다. 장 횡거는 젊어서부터 남보다 재주가 뛰어났는데, 특히 병법兵法 이야기를 좋아했다. 이미 열여덟 살에 오랑캐를 내쫓기로 결심한 그는 붓을 내던지고 군중들을 모아 요서의 빼앗긴 땅으로 진격하고자 했다. 그리고 범중엄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포부와 굳센 의지를 글로 호소했다. 그러나 중엄은 그의 재주를 알아차리고 경계하며 말했다.

“유가에는 뛰어난 가르침이 있어 능히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거늘, 어찌 새삼스럽게 병법을 알고자 하는가?”

그러고는 『중용』 한 권을 보내 자세히 읽어 보기를 권했다.

중용은 횡거의 ‘태허즉기太虛卽氣’라는 형이상학적 사유의 출발점이 되었다.

송대의 도학전에서 ‘역(주역)’으로써 종宗(근원)을 삼고, 중용으로써 체(몸)을 삼고, 공맹으로써 법을 삼았다’고 횡거의 학풍을 평하였다.

이렇듯 중용이 없었다면 횡거의 ‘정몽正蒙’ 태화편(태화太和 = 태허太虛)이 말하는 웅혼한 우주가 태어날 수 없었고, 정몽 태화의 우주가 없었더라면 근세 신유학이라는 학문, 연구의 원리 체계는 나아갈 길이 없었다고 철학자들이 주장하였다. 주자가 도덕론적으로 리와 기를 구별하려는 성향은 이정자二程子 = 정명도〈정호-천리天理〉, 정이천〈정이-성즉리性卽理〉 중에서도 특히 이천의 학통을 이은 것이지만 태극의 전체를 모든 개개 사물 속에서 바라보려는 우주론적 원리 체계는 횡거로부터 나온 것이다.

처음에 장횡거는 그저 덩덤하게 아무 뜻도 모른 채 중용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었다. 그런데 점점 글의 내용을 깨닫고 보니 그 속에 지극한 도리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이에 점차 흥미를 느낀 그는 군대에 들어갈 생각을 버리고 도를 공부하고자 뜻을 세웠는데, 이 사건은 그에게 병법에서 유가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오직 책 속에서만 도를 찾고자 했던 장횡거는 마침내 ‘유가의 정신은 실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에 응시했다. 다행히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운암현雲岩縣의 현장

이 되었고, 이때부터 유가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해보고자 뜻을 세웠는데 그의 나이 서른일곱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효제孝悌를 중하게 여겨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 섬기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신념에 따라 매년 명절 때마다 어른들을 모셔놓고 많은 술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장횡거가 운암현을 아무 탈 없이 잘 다스려나가자 조정에서는 그를 승문원의 교서校書로 승진시켰다. 이때 재상 자리에 앉아 있던 왕안석이 그를 신당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장횡거는 이를 거절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왕안석은 일부러 그를 저동浙東으로 보내 감옥을 다스리게 했다. 이 지경에 이르자 장횡거는 병을 핑계로 삼아 벼슬을 사직했고, 종남산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면서 책 쓰는 일에만 매달렸다.

그는 일단 무엇인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망설임 없이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한번은 깊은 밤,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곧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름불을 켜놓고, 온 힘을 다해 글을 써나갔다. 이렇듯 밤낮을 없이 고민하고 사색하다가 그 유명한 『정몽正蒙』을 쓰게 된 것이다.

그는 날마다 자기의 서재에 종이와 붓과 먹을 가득 쌓아두고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단정히 앉았다. 당시 그의 상태를 보면 몸은 비록 이곳에 은거해 있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한 가지 생각으로 오직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학문에만 몰두하느라 건강을 돌보지 않은 탓에 마침내 폐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의 나이 쉰일곱이었다.

장자전서張子全書의 태허와 태화

이제 장횡거의 우주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앞서 주립계가 우주의 본체를 태극太極으로 삼은 것에 대해, 장횡거는 태화太和로 우주 본체를 삼았다. 그렇다면 태화가 무엇일까? 그것은 본래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또는 ‘가장 잘 화합하는’의 뜻을 갖고 있는데, 장횡거는 여기에서 ‘크게 조화를 이룬다’ 또는 ‘크게 화해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듯하다.

이처럼 우주는 크게 화해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주 가운데에서는 움직이거나 고요히 있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 만물을 이루게 된다. 모든 사물이 이뤄지게 되는 이 변화를 가리켜 곧 기氣라 부른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기란 텅 빈 우주 가운데 꼭 들어차거나 혹은 흩어지면서 이것들이 서로 화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사물이 이뤄지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우주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의 상대적 성질을 가리켜 태화라 부를 수 있겠다. 즉 우주의 모든 사물은 서로 함께 나란히 가거나 서로 어울려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이뤄지는데, 이것을 가리켜 태화太和라 부른다는 뜻이다.

태화란, 도가 밖으로 드러난 모양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도의 본래 생김새는 ‘태허

太虛'한 것이라 한다. 그것은 형체도 없고, 느낌도 없으며, 그침도 없는 한없이 텅 빈, 말하자면 '커다란 비움'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장횡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이 비어 있는 한가운데虛中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보았다. 즉 태허란 말은 우주 만물의 본체를 가리켜 붙인 이름이고, 태허란 우주 만물의 본체가 나타내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태허가 곧 기의 본체다.

묘한 도의 특성

장횡거는 “우주 만물이 하나의 똑같은 ‘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과 모든 사물은 커다란 한 몸의 각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을 부모모시듯이 받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우리의 형제로 간주해야 한다.

성인은 우주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도 딱히 얻는 바가 없으며, 죽어도 특별히 잃어버리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만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려고 한다. 성인은 살아 있을 때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우주의 일원으로서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는 한편, 죽음이 닥쳤을 때에는 평안히 그것을 받아들여 다만 쉬는 것이다.

신유가 사상가들은 모든 도덕적 행동이란 초도덕적인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모두 도교의 선사들이 ‘묘

한 도’(묘도妙道)라고 부르는 특성을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신유가 사상가들은 사실 선禪의 사상을 한층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횡거의 학설은 첫째가 “기의 철학”이다. 즉 태허의 세계는 무한하며 무한한 공간 속에는 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기의 모이고 흩어짐에 생명의 생멸 즉 삶과 죽음이 따르지만 물체가 소멸하여도 기는 없어지지 않고 태허 속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천지와 나와의 연대감이다. 횡거가 서명에 말하기를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나의 본체이고 하늘과 땅을 거느리는 것을 나의 본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性은 하늘이 준 것으로 처음부터 선하고 악한 것이 없는데, 현실에서 인간이 악한 것은 기氣의 불균형에서 온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본래의 것을 건곤乾坤의 성性이라 하고 이 건곤의 성을 선악을 초월한 것으로 그 성격은 지선至善이라하여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별하여 기질의 변화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횡거 선생의 서명에 대하여

본래는 ‘어리석음을 고치다’라는 의미의 펴우라 이름하였지만, 이천선생이 얼마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여 ‘서쪽(왼쪽)에 걸어두고 자신을 돌아 본다’는 뜻으로 서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문장은 짧지만 내용이 대단히 심

오하여 원문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역 서명西銘

정완頂頑 : 완고한 마음을 바르게 하자.

하늘을 아버지라 부르고 땅을 어머니라 부르니, 내 작은 몸은 천지 가운데에 섞여 존재 하도다. 그러므로 천지 가득한 기운이 내 몸을 이루고, 천지를 주재하는 이치가 바로 내 본성을 이룬다. 백성은 나와 태가 같은 동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동류同類다. 위대한 임금은 내 부모天地의 장자長子이고, 그 대신들은 장자長子의 가신家臣이다. 년장자를 존대하는 것은 장로長老를 내 어른처럼 모심이고, 고아나 약자에 자비로움은 내 아이처럼 사랑하는 바다. 성인聖人은 그 덕이 천지의 덕과 부합하는 사람이고, 현인賢人은 그 덕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천하의 무릇 병들어 파리하고 노쇠한 사람, 불구자, 의지할 곳 없는 사람, 홀아비와 과부는 모두 내 형제임에도 몹시 괴로운 처지에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무리이다. 이러한 때에 그들을 잘 보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공양함이요, (이를) 즐겁게 여기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순수한 효성이다. 도리를 어기는 것을 패덕, 인仁을 해치는 것을 도적이라 한다. 악惡을 행함은 못난 짓이며, 그 타고난 형체를 실현하는 자는 그 아버이를 닮은 것이다. 천지조화를 알면 그 일을 잘 풀 수 있고, 신명神明을 궁구窮究하면 그 뜻을 잘 이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집안 구석에서

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욕됨이 없고,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양육해야만 나태懶怠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하는 술을 끊음은 숭백崇伯의 아들禹이 부모를 돌보고 봉양코자 함이었다. 영재육성은 정鄭 영봉인穎封人 영고숙穎考叔의 석류錫類(선량한 자손이 나오도록 함) 효심의 전파였다.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 부모를 기쁘게 한 것은 순舜의 공적이지요. 참언으로 죽게 되었어도 도망가지 않고 팽살烹殺형을 기다린 것은 진瞢 태자 신생申生의 공경함이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온전히 지켜낸 사람은 증자曾子이며, 부모 뜻을 따르는 데 용감하여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윤길보尹吉甫의 아들 백기伯奇다. 부귀와 복택福澤은 하늘이 내 삶을 풍부하게 하려함이요, 빈천과 근심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절차탁마하여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나 살아서 하늘을 순리대로 섬기면 죽어서도 편안할 것이다.

하서천명도

조선조 억불숭유의 국시에 따라 전기 유학자들은 송대 유학을 깊이 연구하고 특히 천명에 대한 탐구를 특별히 중요시하였다.

초기 양촌 권근(1352~1409)의 입학도설안에 “천인심성합일도”와 “천인심성분석지도”를 비롯하여 추만 정 지운(1509~1561)이 “천명도”와 “천명도해”를 지었고, 퇴계 이황(1501~1570)은 “천명신도天命新圖”와 “천명도

설“을 지었으며 하서 김인후(1510~1560)와 고봉 기대승(1527~1572)도 각기 “천명도”를 남겼다.

또한 천명도에서 사단칠정을 이기理氣로 해석하는 것을 발단으로 하여 퇴계와 추만 사이에 속칭 천명도 구도舊圖 신도新圖가 나왔고, 이어 퇴계와 고봉 사이 8년여에 걸쳐 사철이 기논변四七理氣論辨이 이어졌으며, 정 병련 교수의 분석(전통과 현실 14호)에 따르면 퇴계와 고봉 간 35개 쟁점 주제에 18개 사항은 합의로(착간망론錯看妄論1, 본동무이本同無異13, 실칭정失稱停4) 17개 사항은 견해차이 있어 그 가운데 9개항은 끝내 동의하지 못한 항목으로 남았고(견이이見異而 중불능종終不能從), 율곡 이이(1536~1584) 우계 성혼(1535~1598)을 비롯하여 조선 말엽까지 수많은 학자들과 논쟁의 중심에 들지 아니한 화담 서경덕(1489~1546) 소재 노수신(1515~1590) 하곡 정제두 등 양명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천명에 대한 탐구가 중국 성리학자들 이상으로 높은 열의와 깊은 사색으로 진행되었음은 남겨온 도설圖說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남는다.

하서선생은 조선조의 대표적 성리학자로 일찍이 성균관에 유학하면서 퇴계와 사귀었지만 모재 김안국과 사승관계이며 모재의 아우 사재 김정국의 문인 추만 정 지운과도 교분을 두터이 한 학문적 관계로 해서 천명도를 남기게 되었다.

하서선생이 천명의 탐구를 어떻게 하였는

지를 살펴 하서선생의 천명도를 중심으로 사천사상 즉 천명관을 살펴본다.

하서천명도는 1578년 선조 6년에 간행된 정 추만의 천명도와 천명도해, 퇴계 이황의 천명도설天命圖說 개정改訂이 실린 책(능성본, 고려대 도서관 만송문고소장) 속에 함께 수록되어 전해진다. 하서 천명도는 추만 등과 교유시점으로 미루어 1543년 이전에 저작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으니 정 추만보다는 6년이 늦고, 퇴계 이황의 개정 천명신도天命新圖보다는 4년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참고할 첨언은 하서선생 몰년 1560년 이후 8년 지나 1568년 초간 하서문집이 성책되고 비슷한 시기 1568년 12월 1일 퇴계가 서명도西銘圖를 포함한 성학십도를 선조에게 찬진 상언上言한 점에 대하여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나 조 희문, 변 성온 등 문인들의 구원불가작九原不可作이니 통탄할 수밖에 없다.

우선 정 추만 천명도 편집자의 글에 의하면 “하서가 일찍이 추만의 천명도를 보면서 함께 상고하였다가 자득自得함이 있어 일도一圖를 그렸고 글로써 해설코자 하였기 때문에 하서의 “천명도”를 함께 실어 학자들의 편람에 대비케 되었다는 것이다”고 하였으나 천명도를 해설한 하서선생의 글은 7행에 불과한 지극히 짧은 글이다. 그 글의 내용은 천명도를 펼쳐 보면서 감회가 없을 수 없어 도圖의 뒤에 제사題辭를 적는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천명도의 제작은 보통의 규칙자窺測者로

는 본떠 만들 수 없음을 강조하고” 天의 命이 야말로 공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生生生生하는 이理란 일찍이 단절된 적이 없었다. 탑승한 기틀(소승지기所乘之機)은 음과 양이라는 것인데 이 음양이 한 번 動動하고 한 번 靜靜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만물을 아울러 육성하고 함께 유행한다. 그러나 형기의 사私에 속박되면 이러한 것을 알 수 없다. 오직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총명과 예지叡智로 지성의 태도를 그침없이 지녀서 그 본성을 다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기미幾微를 살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하서 천명도에 붙인 술회 내용의 전부다. 그래서 하서 천명도와 제사題辭만으로 천명관을 당장 알아차릴 수 없고 먼저 세분 그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하서선생을 포함 동 시대 이전에 천명이나 서명의 사천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살펴서 하서선생의 천인관天人觀의 주지主旨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 추만의 천명도 원도에서는 천형天形과 지형地形의 일차적인 구분 아래 다시 지형 속에 인형人形과 동물, 식물을 세분하여 논하고 있는데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하서의 천명도에서도 천天과 지地의 구분 아래 다시 인人과 물物 그리고 동물, 식물을 세분하여 그려 넣고 있다.

천 지 인으로 삼분하여 천명의 세계를 도식화한 후 천天을 십이지十二支로 방위와 시간을 배정하고 음양오행으로 생성소멸을 다루고, 원형이정의 4개념으로 생성소멸의 과정

을 범주화시키고 있는 점은 추만, 하서, 퇴계의 천명도에서 거의 일반화된 표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서 천명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성과 기氣의 차이를 중시하고 성성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되는 오성五性을 갖춘 인간을 금수나 초목의 존재와 구별 지어 존재의 원리로 삼고 있다. (전색불통全塞不通, 혹통일로或通一路) 또한 기氣의 관점에서 기질氣質의 정통正通 편색偏塞의 차이에 따라 인간과 금수 초목의 존재를 구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을 평정직립平正直立, 금수를 횡생미상橫生尾上의 형태로, 초목은 역생향천逆生向天의 형태로 발發의 주체를 이미 규정하여 인간 본성을 중시하고 사단과 칠정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것은 하서선생께서 인간 마음의 욕慾과 정情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기미幾微를 중시하여 선악善惡의 분기점으로 삼기에 명命의 반대편에 위치한 정권情圈의 끝에 기氣를 기점으로 삼고, 선善으로서의 화和와 악惡으로서의 과불급을 그려 보였는데 선악의 분기점을 의意로 보아 칠정을 구분하는 정 추만과 달리 선악의 문제가 중절中節이나 중화中和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과부급過不及으로 달라진다고 심성론적으로 표했다 하겠다.

천명도 題辭원문 7행의 글에 유천지명維天之命 오목불이於穆不已 生生지리生生之理 미상간단未嘗間斷 소승지기所乘之氣 알음여양日陰與陽 일동일정一動一靜 호위기근互爲其根 상위류통相爲流通 단但 곡어형기지사梏於形氣之私 불능지

지不能知之 유천하충명예지惟天下聰明叡智 지성 무식至誠無息 능진기성자能盡其性者 내능유이 찰기기언乃能有以察其幾焉이라 하여, 풀이하면

“오직 천의 명이야말로 공경하여 마지않는 것으로 생성生成하는 리理란 일찍이 단절된 적이 없었다. 그(생명창조) 리理의 발현할 기틀(소승지기所乘之氣)은 음과 양이라는 것인데, 이 음과 양이 바로 한 번 동動하고 한 번 정靜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만물을 아울러 육성하고 서로 교류 소통한다. 다만 형기의 사사로움에 얽매이면 그러한 것을 알 수 없다. 오직 천하에 가장 뛰어난 총명聰明과 예지叡智로 지성의 태도를 쉽없이 지녀서 그 본성을 다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기미를 살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하는 양촌 권근의 입학도설에서 “천인(심성합일心性合一)지도”와 “천인(심성분석心性分析)지도”의 내용 가운데 염계의 태극도설보다 변화하여 무극을 표기하지 않고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별을 통하여 설명하지 않고 사단칠정이 발출할 때에 선악의 양면성과 차이가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단칠정의 발출이 그 기미에 선악의 다름이 있음을 살피지 못하면 사물에 부림을 받게 되어” 욕심이 동하고 정에 끌림에, “도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입학도설에서 언급하고 있다.

하서의 천명도에는 기미幾微를 중시하여 당시에 중국은 물론 조선의 성리학사에 존재하는 것보다 분명하게 천인합일의 이념이 밝혀

져 있으니 천명에 대한 해석에서 인간은 물론 금수나 초목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고 인성에 대해서도 성性を 중中으로 파악하여 천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 등이 근본적으로 성리학 해석의 새로운 장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용의 정신에 입각한 천인합일의 사유를 통하여 천명과 인간의 심성, 그리고 그 본성을 추구하기 위한 윤리 실천의 문제를 일관된 체계로 집대성하고 있는 하서선생의 철학사상은 후세 정조대왕의 문묘종사 사제문에서 “해동의 염계요 호남의 수사로 성명음양의 심오함과 아득히 태극도설로 격치성정의 근원에 돌아가 제가의 오류를 내치고 리기사철理氣四七의 변론辯論으로 동지의 의문을 풀고 강의직방剛毅直方의 온오를 지녀 광명온수光明溫粹를 밖으로 발하니 바로 청수부용의 모습이라 하였다.”

왕약알王若曰. (전략) 유경해동림계 惟卿海東濂溪. 호남수사湖南洙泗. 성명음양지오性命陰陽之奧. 물호태극도동귀物乎太極圖同歸. 격치성정지원格致誠正之原. 직어소학서저력直於小學書著力. 탁연독견대의卓然獨見大意. 구지자유여사求之自有餘師. 도기혼일지론道器混一之論 단연출제가지류斷然黜諸家之謬. 이기사철지변理氣四七之辨. 패호석동지의浦戶釋同志疑. 강의직방지온호중. 剛毅直方之蘊乎中. 즉대동송백則大冬松柏. 광명온수지발우외光明溫粹之發于外. 즉청수부용則清水芙蓉. (하략)

사천사상 事天思想 사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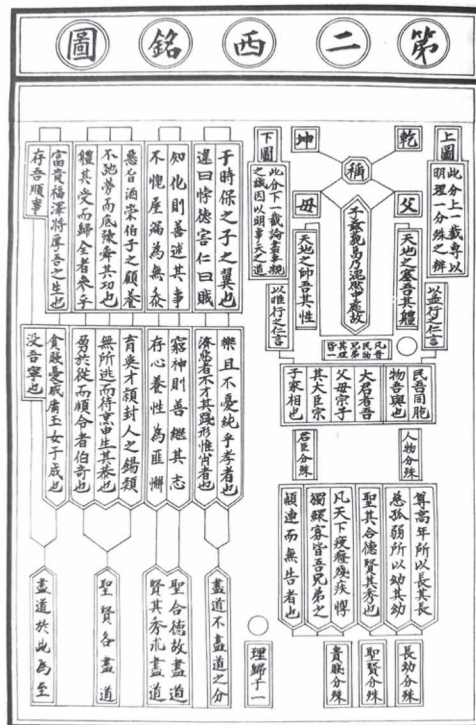
第二西銘圖

유교철학을 전공하는 모 국립대 교수는 본인은 개신교 신자이면서 유학은 종교로서 유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균관이나 향교의 교임을 맡지 아니한 대부분 사문들은 수기의 학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사천사상을 주장하는 어느 카톨릭 성직자는 사천사상이 유가의 핵심적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십계명에 하느님을 흠송하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등을 연결지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6세기 이전 하서선생께서 재세在世의 사천은 예수탄생 이전 맹자(BC 372~289)에 의해서 전해온 경전에 “그 마음을 다 실천하는 자는 마음의 근원인 성性を 알 수 있으니 그 성을 알면 더 나아가서 성性의 근원인 하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성을 기름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존기심存其心하야 양기성養其性은 소이사천야 所以事天也) 하였습니다. (맹자 진심상 1장)

퇴계는 1568년 선조에게 성학십도 즉 태극太極 서명西銘 소학小學 대학大學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 심통성정心統性情 인설仁說 심학心學 경제잠敬齋箴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의 성학10圖를 찬진하였고, 남명도 성학십도 비슷한 글을 지었는데 삼재일태극三才一太極 성위태극誠爲太極 천인일리天人一理 심통성정心統性情 심기위학차제審幾爲學次第 충서忠恕 박약博約 경성敬



誠 역서학용어맹일도易書學庸語孟一道로 두 분의 글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남명에게는 서명에 관한 언급이 없고 퇴계에서는 심기審幾를 논한 부분이 없다.

남명의 제 24번 「기도幾圖」 해설에 의하면 ‘성의誠意’·‘신독愼獨’의 관점에서 ‘성찰省察’·‘극기克己’의 공부를 논한 것이다. ‘기幾’는 생감이 처음 움직일 때이며 또한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이 나뉘는 경계점이다. 이 고비에서 의의의 성誠이 가장 요구되며 한 털끝만치의 자기自欺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의념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자기 혼자만은 아는’것이기때 반드시 ‘근독謹篤’,

‘신독慎獨’해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증자曾자가 ‘수약守約’했다고 하였다. 『대학』 성의장誠意章에서 “마음속에서 성誠하면 밖으로 나타나는 까닭에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음에 삼간다.”고 한 바로 뒤에 증자의 “열 사람의 눈이 보고 열 사람의 손이 가리키니 그 엄함 인제!”라는 말을 인용했다. ‘성의誠意’와 ‘신독慎獨’은 그 뜻이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약守約’의 의미는 ‘그 요체를 지킨다’(수기요守其要)이다. 무엇이 그 ‘요체’인가? 이것은 당연히 의리의 요체이다. 그런데 의리의 요체는 바로 ‘생각이 처음 움직이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자기 혼자만은 아는’ ‘기幾’의 위에 있다. 그 기幾를 살피면 이욕理欲, 시비是非, 선악善惡의 갈림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의리의 ‘요체’는 바로 여기다. 그러므로 증자의 ‘수약’은 『대학』·『중용』의 ‘성의誠意’·‘신독慎獨’으로 발전되었으며 확실히 성학聖學의 혈맥血脈이 자리하는 곳이고 배우고 노력하는 요지要地라고 주장하였다.

서명사천도 추론을 위한 발제

사위이자 문인인 월계 조희문은 문집 서문에서 하서선생 학문의 광박廣博함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사서오경에 침잠반복沈潛反復하여 그 실용을 구하며 제기諸家와 사서史書를 널리 상고하고 통하여 그 득실을 고정考訂하였으며 내외

와 현미顯微를 한결 같이하여 성실에 근본을 두고 동정動靜 지행志行을 관철하여 공경을 주로 하였다. 위기爲己, 위인爲人, 의리義利, 공사公私의 분간에 엄격하였고 더욱 본말本末 정조精粗 도기道器 상하上下의 분간을 신중히 하였으며 기송記誦이나 자랑하면서 근본이 없는 것을 이미 취하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믿고 지나치게 고상한 것을 취함도 깊이 우려하였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

“도심은 적연寂然하여 움직이지 않고 인심은 느끼어 동動한 것이다.”하니 대對하기를 “성인의 이른바 인심도심은 모두가 동動하는 곳을 가르켜 말한 것이다”

“희로애락은 미발未發의 전에 구한다” 하니 대對하기를 “경敬을 지키고 함양하여 동動에서 살피는 것만 못하다.”

“천리를 상달上達하는 것은 유儒나 석釋(불佛)이 동일하다.” 하니 “노老, 불佛의 도에는 본시 천리가 없는데 그 상달이 우리 유와 동일하겠는가?”하였고,

“주경周經(주역)은 영중影中(상상속)의 천天을 말한 것이다.” 하니 “성인의 말씀은 바로 천지의 도이니 영影이라 일러서는 아니된다.”

“행行에 독실하면 지知에는략略해도 된다.”에 대하여 “얕이 밝지 못하면 행함에 있어 반드시 막히고 마니, 지와 행 두 가지에 하나를 폐해서는 아니된다.”

“내면에 돈독하면 외면에 소홀해도 된다” 한 말에 대하여 “외면이 정제整齊하지 못하면

내면이 일—을 주로하지 못할 것이니 경敬과 의義를 아울러 닦아 마 땅히 양진兩進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기설을 주장한 화담 서경덕, 진도에 18년간 유배생활을 하였고 라흠순의 곤지기를 긍정한 소재 노수신과 더불어 속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논하듯 교류하였고, 일재 이항, 퇴계 이황, 고봉 기대승 등 여러 문사들과 더불어 태극太極의 온오蘊奧를 발명하였으며, 퇴계는 하서 선생의 학문을 논하는 지위가 고명함을 매우 칭찬하였으며, 평시에 신재, 모재, 면앙정 등을 스승으로, 석천, 기봉, 미암, 금호, 소쇄처사 등과는 아끼고 존경하는 벗으로, 조희문, 양자징, 변성온, 기효간, 변이중, 정철, 고경명 등 문인에게는 공부하는 진실한 도리로 인도하였으며 태극 서명 근사록 대학 소학에서 주역 등 모든 경서經書에 이르기까지 의론이 정미精微하여 한결같이 바름에서 나왔다. 지금 지면 관계상 모두 기록할 수 없지만, 또한 하서선생 재세在世 시 학문적으로 일가를 이루었거나 후세에 추앙받게 된 퇴계 이황의 서명도西銘圖, 남명 조식의 심기론審幾論, 회재 이언적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등 선유先儒의 문집, 화담의 원이기

설原理氣說, 이기설, 태허설太虛說 그리고 그의 문인 소재 노수신의 효제부의 주지主旨를 살피야한다. 아울러 효제를 중시한 횡거선생의 서명에 대하여 송대 유학자 쌍봉요씨 등이 사천事天사상에 대하여 주해하기를 “서명의 앞부분은 사람이 천지의 아들임을 밝혔고, 뒷부분은 사람이 천지를 섬기는 일은 마땅히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하여 효사상이 주지主旨임을 설파하였고, 또한 서명 뒷부분에서 송백자崇伯子, 순舜, 증삼曾參, 영봉인穎封人, 신생申生, 백기伯奇 등 성현이 각각 그 도를 다하는 예증例證을 통하여서 각 사례가 한결같이 효孝가 주지임을 알 수 있으니, 하서선생의 서명사천도는 현존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하서문집』 1권에 전제된 효부孝賦(차양형언진 산보 호소쇄산인 윤次梁兄彥鎮 山甫 號瀟灑山人 韻)을 비롯 조신생사早申生辭의 내용이 대지大旨에 근접하리라 추론하면서, 문집을 3간刊을 거치는 동안에도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를 찾아내지 못하고, 화재 소실 사항에 대하여도 육하六何의 구체성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관심 있는 연구자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발제하는 말에 기뻐합니다.

김인후와 기대승의 황룡강변 소재 시詩 고찰

탁현숙(조선대학교)

들어가며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중종 5년, 1510~명종 15년, 1560)와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중종 22년, 1527~선조 5년, 1572)은 조선 중기, 당대 최고의 지식인 계층인 사대부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여러 분야를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두 사람은 어등산을 감싸고 도는 황룡강변의 이웃한 마을¹⁾에서 태어나 동시대를 살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당시 사상 철학을 지배했던 성리학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뜻을 같이하였다.²⁾ 김인후는 세상을 떠나기 1~2년 전 기대승과 함께 태극도설, 사단칠정의 학설을 강론하여 훗날 이황李滉과 기대승의 사단칠정론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³⁾ 또한 두 사람은 16세기 호남을 대표하는 문인으로도 흥미했는데 『하서전집河西全集』에 전하는 김인후의 시詩는 1600여 수에 달하며, 기대승의 『고봉전서高峰全書』에는 700여 수의 한시와 각종 산문이 담겨있다. 51세와 46세라는 아쉬운 생을 살다간 세월에 간주해 볼 때 무척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치이력에 비해 유난히 고향인 황룡강변에서 보낸 시간이 긴 두 사람은 그곳을 대상으로 읊은 시를 상당량 각자의 문집에 남겼으며⁴⁾, ‘호남시단’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 당시 호남시단의 상황을 살펴보면 ‘무등산문학권’⁵⁾ 혹은 ‘면양정시단’⁶⁾ 등으로 대신해 부를 만큼 담양 인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곳에서 탄생된 작품 위주로 활발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가사문학의 산실’이라는 이름으로 담양 인근 소재 문학이 호남문학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당시 집단시의 경향성까지 보일 정도로 문인들이 무등산 주변 담양권의 누정들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히 지역으로 구분하자면 무등산문학권 외에도 조선 중기 광주 근교에는 여러 누정들을 중심으로 많은 문인들이 작품 활동을 한 성과물들이 남아있다.

무등산이 광주의 상징물로서 시가지의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등산은 서쪽 끝에서 그에 버금가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

다. 특히 어등산을 중심으로 동과 서를 감싸 안고 남쪽으로 흐르는 황룡강과 극락강은 김인후의 고향인 장성땅에서, 또는 호남시단의 중심지였던 담양땅에서 각각 발원하여 어등산을 앞뒤로 휘감고 돌아 영산강으로 합수되는 광주의 대표적인 강이다. 그 황룡강과 극락강 주변에도 호남시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많은 문인들이 아름다운 누정을 세우고 사상과 철학을 문학에 담아냈다. 어등산 주변은 그 문인들의 세거지⁷⁾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땅을 소재로 하여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이미 밝혔듯이 어등산 주변 출생 문인들 중에서도 김인후와 기대승은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도 정치 이력이나 학문, 사상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담양 일대를 중심으로 한 무등산문학권에 가려져 그동안 소외받고 있었던 어등산문학권 연구의 일환으로 두 사람의 황룡강변 소재 시詩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 안에 담긴 공간적인 이미지와 작가의 성정을 함께 밝혀보도록 하겠다. 두 사람의 시를 공동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좀 더 입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함이며, 그 고유성을 좀 더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나마 담양 일대의 경관을 읊은 호남시단의 시풍과도 비교검토 하고자 한다. 본고에 인용되는 시는 해설에 꼭 필요한 시를 제외하고는 황룡강변의 자연 소재이거나 그 심상이 담긴 시를 우선으로 하였다.

김인후의 황룡강변 소재 시詩 특성

담박하고 순정한 정감 표출

김인후는 고향인 황룡강변을 떠나 있었던 기간이 10년 남짓에 불과할 만큼 51세로 타계할 때까지 대부분을 고향에서 지냈다. 그만큼 관리로서의 자세보다는 향리의 선비 모습으로 자연과 전원에 의탁하여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상태였다. 그래서인지 고향에서 지은 시들 역시 본격적인 산수시나 자연시라고 명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들이 자연 소재를 매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눈만 뜨면 마주하는 고향의 산천 앞에서는 자신 역시 자연의 일부였다. 그가 고향에서 읊은 시는 자연의 순환이 근원적인 이치라고 생각해서인지 다른 이어시⁸⁾理詩와는 다르게 애써 이理에 초점을 맞추려하지 않은 듯한 작품이 많다. 그만큼 산수자연은 인간의 시각으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분으로 순하게 하나가 되어 흥취에 젖어들면 그 안에 이치는 저절로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문두견⁹⁾聞杜鵑

夜深無月對殘燈

밤 깊어라 달이 없어 이운 등불 대하자니

故事還堪說與僧

중과 함께 옛일을 이야기함직 하이.

何處蜀魂聲入耳

어디선지 두전 소리 귓전에 들어오니
 蒼茫夢落故山層⁸⁾
 밤꿈은 아득아득 고향 산에 떨어지네.

백정자대유견방 白正字大裕見訪
 翠竹江村映白沙
 강마을 푸른 대는 백사장을 비치는데
 故人來到故人家
 친구가 반갑게도 친구집을 찾아왔네.
 相逢痛飲東城酒
 서로 만나 동성 술을 싫도록 마시고서
 一醉忘情字畫斜⁹⁾
 취중에 다 잊으니 글자 획이 비끼었네.

작가들이 작품 안에서 과장된 찬사를 거리
 킴 없이 보낼 때가 바로 자연을 즐긴 후 그 흥
 취를 표현할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향
 인 황룡강변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는 그런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과함이
 나 들뜸이 적고 성정이 담박하고 순정한 정감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배경과 상황들
 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감동으로 다가온
 다. 두 편의 시 모두 마지막 구절에 말 못할
 시름을 실어놓은 것이 분명함에도 독자에게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고향산은 아득아
 득 떨어진 밤 꿈도 받아두었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내어줄 것 같고, 술에 취한 모습 역시 살
 짝 위트와 익살까지 느껴지게 한다.

시 한 편을 더 살펴보겠다.

증윤경인 贈尹景仁

華岳松明雪
 화악이라 푸른 술엔 눈이 하얀데
 孤軒酒滿杯
 외딴 집엔 술이 잔에 가득하여라.
 長吟忘日暮
 해 저문 걸 잊은 채 길게 읊으니
 遠抱爲君開
 그대 위해 펼치려다 쌓인 회포를.
 鄉土情何切
 어찌나 간절한지 고향의 정이
 朋游興未裁¹⁰⁾
 건잡지 못할 흥은 벗놀이로세. (중략)

푸른 술에 하얗게 눈이 쌓이고 외딴 집엔
 술이 가득하니 저절로 흥이 돋지 않을 수 없
 고, 흥이 발하면 시를 읊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넉넉함 모두가 고향의 순박한 정에서 나
 오는 것이니 벗과의 흥겨운 놀이는 밤이 깊
 은 줄 모른다. 그야말로 아무런 사심 없는 인
 물人物의 정을 순정하고 정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천인합일 天人合一의 자연관

유학자들은 대부분 진리의 소재지가 천지

자연이라고 믿는다. 자연의 세계에서 태양이 비추고 달이 뜨고 비가 내리고 추위가 가고 더위가 오며 봄에는 성장시키고 가을에는 죽인다. 바로 자연은 모든 만물의 생을 관장하고 조명하는 도구이자 잣대이다. 만물이 어떻게 해보고자 해서 바뀌지는 않는다. 저절로 그렇게 될 따름이라는 것(자연)이다. 한마디로 천인天人은 일리—理이고 진리는 바로 이 천인을 일관하는 진리이다.¹¹⁾ 그래서 만물의 이치는 결국 하나의 이치에 이른다.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소이연所以然]에 인간은 수긍하고 따라야만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 된다. 김인후가 고향에서 읊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의 시 한 편이 대신해 주고 있다.

자연가自然歌

靑山自然自然
 청산도 절로 절로
 綠水自然自然
 녹수도 절로 절로
 山自然水自然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山水間我亦自然
 산수간 나도 절로.
 已矣哉自然生來人生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將自然自然老¹²⁾
 절로 절로 늙사오리.

고향 황룡강변 소재의 시에서도 역시 그런 자연세계의 법칙성이 드러나고 있다.

증금군贈金君

短笛聲中似有愁
 짧은젓대 가락속에 시름이 있다는 듯
 湧珍山下思悠悠
 용진산이라 산 아래 생각이 유유히,
 一樽綠酒相逢處
 한 항아리 익은 술 서로 만나는 곳에
 休說新遊與舊遊¹³⁾
 새 놀이 묵은 놀이 따지질랑 아예 마소.

청후晴後

浩浩霜村北
 넓어 넓어 상촌의 북쪽이라면
 泔泔祭石南
 흘러 흘러 제석의 남쪽이로세.
 潮平黃卷潦
 복덕물 건히어라 조수 고르고
 風靜碧凝潭
 바람 자니 푸르름 못에 엉기네.(중략)
 一心如若此
 한마음이 만약에 이와 같다면
 天地可相參¹⁴⁾
 천지가 서로 돕도다.

김인후의 천인합일의 본연적 자연관을 만날 수 있다. ‘용진산하사유유(湧珍山下思悠悠)’라는 시어에 담긴 뜻은 산 아래 인간의 심사만이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황룡강의 눈앞에 펼쳐진 용진산도, 강도, 온갖 미물들도 모두 성정이 유유하다는 것은 그곳, 즉 작가가 사랑하는 고향의 성정 모두가 그렇다는 뜻이다. 거기에 인간에게 몰아일여(物我一如)의 흥취를 둘 수 있는 한 항아리의 익은 술이 있으니 이것저것 까다롭게 굴지 말고 자연의 진리에 따라 함께 흘러가자고 부추기고 있다. 두 번째 시 역시 산도, 들도, 물도, 바람도 맑은 소임대로 정을 통하고 있으니 우리 인간 역시 그들과 어우러짐이 마땅하다고 하고 있다.

기대승의 황룡강변 소재 詩 특성

만흥漫興과 현실초극

기대승은 자연을 마주하여 몰아합일을 이루는 모습에서 조금은 담박하고 순화되어 있는 김인후의 시에 비해 훨씬 더 질편한 흥취를 보여준다. 그야말로 흥취와 열락의 공간으로서의 산수자연 속에서 현실세계와 이상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 현실을 잊거나 초극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느껴진다. 기대승이 고향산천에서 읊은 두 편의 시를 살펴보겠다.

만흥漫興

故山春雨後
고향 산에 봄비 내린 뒤라
花發蕨芽肥
꽃 피고 고사리도 돌아나누나
謾欲尋芳去
부질없이 꽃을 찾아 떠나갔다가
應須詠月歸
달빛에 시 읊고 돌아오련다
松醪滿盎嫩
송료는동이 가득 익어 가고
石菜着根穢
돌나물은 뿌리 내려 향기롭네
醉臥風生耳
취해 눕자 바람이 귓가에 나니
陶然忘世機¹⁵⁾
도연히 세상일을 잊어버리노라

음증거사 우吟贈居士 又

……중략
倒衣看急水
흐트러진 차림으로 여울을 구경하고
高枕望回汀
베개 높여 굽이치는 모래톱을 바라본다.
丘壑琴三疊
구학에는 거문고 석 장이요
乾坤酒一瓶

전곤에는 막걸리 한 병이라

寂寥詩興發

적막한 속에 시흥이 발동하여

未覺夕陽冥¹⁶⁾

석양이 어두워짐도 깨닫지 못하누나.

기대승은 두 시에서 모두 고향 산천에 매료되어 흠뻑 취한 다음 이어서 술에 취하고 다음은 시흥詩興이 발동하고 있다. 그렇게 그가 질편하게 만흥漫興에 잠길 때마다 술을 마시는 이유 역시 현실초극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현실초극 상태에서 읊어진 시는 도道를 증시하는 유학자의 냉철한 가슴에서 지어지는 시가 아니라 몰아합일을 이루는 인간 본연의 기질에서 자연스럽게 읊은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그는 고향의 풍경에 흥이 발해 시로 읊느라 날이 저무는지도 잊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수와 정신이 일체를 이루는 예술적 경지 및 사대부의 교양 표출과 관련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¹⁷⁾

기대승은 당대 최고의 ‘통유通儒’로 평가되기까지 하였는데 그만큼 유가철학이 담고 있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삶¹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맞게 그의 문학 역시 도道를 실은 재도적 문학관을 취한 작품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문학을 그렇게 단순하게 선을 긋기에는 성급한 점이 있다. 특히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연을 읊은 시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기론적 논의

를 살펴보더라도 그는 ‘칠정七情’과 ‘기발氣發’을 긍정하는 입장에 있었고 ‘흥’은 개인의 기질적 요소가 상당부분 수긍되는 쪽으로 귀결된다¹⁹⁾고 보았다. 위의 두 시에서도 만흥에 젖어 술에 취하면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세상일까지도 잊어버린다고 과감하게 감정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는 풍요롭고 활달하면서 낭만적 감성을 즐겨 나타냈던 호남시단의 특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흥에 취하면 세상사를 모두 잊어버리는, 아니 잊어버리려고 하는 현실초극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직설적 감정 토로

기대승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칠정七情과 기발氣發을 긍정하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인간 개개인의 기질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대승은 인생행로에 있어서도 김인후보다는 직관에 충실한 삶을 산 듯하다. 인종의 승화와 함께 36세라는 이른 나이에 관직을 버린 이후로 별세할 때까지 변함없이 고향을 지킨 김인후와는 달리 기대승은 총 7년의 관료생활에서 26회에 걸쳐 역임을 되풀이 하며 고향²⁰⁾과 서울을 한 해에도 몇 번씩 오르내렸는데 결국은 죽음도 고향을 향해 내려오는 길목에서 맞이하는 신세였다. 역임이 잦았다는 것은 이임 또한 잦았다는 뜻이다.²¹⁾ 그것은 당시의 정치상황도 있었지만, 상당부분은 기대승의 기질과도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황룡강변 소재 시에도 그런 기대승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석동파적거담이유시운……우昔東坡謫
居儋耳有詩云……又

守寂在窮巷
적막을 지키며 궁촌에 있으니
涉世無寸長
세상을 사는 데 한 치의 장점이 없네
空餘骯髒姿
부질없이 깨끗한 기운 남았으니
已得稱疏狂
이미 거칠다는 칭호만 얻었노라
士固有三敗
선비란 본래 세 번 패배 있어야
或能成一匡²²⁾
혹시 한 가지 이룰 수 있다네(중략)

소헌유와 정흥망연 술이성시 봉정일
소 대승백증지장 小軒幽臥 情興茫然 率爾成
詩. 奉呈一笑. 大升白重之丈

(……중략)
天地悠悠吾自老
아득한 천지 속에 이내 몸 늙어 가고
風塵衰子須嚮
끝없는 풍진 속에 그대도 찡그리리라
驅除萬事猶謀醉

모든것 잊으려고 술취함도모하니

醉後狂歌遺葛巾²³⁾

취한후미친듯노래하며갈건도있었네

두 편의 시에서 모두 불편한 심기를 어떤 장치나 비유를 하지 않고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이나 단점들도 숨김없이 털어 놓는다. 또한 결심 역시 단숨에 내보이고 있다. 그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술에 취해 머리에 쓴 갈건까지도 잃어버렸다고 고백한다. 기대승의 기질과 성정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순정하게 잘 정제되어 있고 조금은 섬세하고 유약한 듯한 김인후의 시와는 상당부분 다른 면이기도 하다.

그런 기대승의 시를 놓고 김동준은 “호방하고 방달放達하며 때때로 취흥에 따라 출렁거리는 감정은 기대승 스스로도 모순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개인적 감정표출 역시 매우 과감한 모습을 보인다.”²⁴⁾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황룡강변의 이미지

김인후 시詩에 나타난 이미지

친근, 유여한 안식처

김인후는 일생의 대부분을 고향인 황룡강변(장성현 대맥동)에서 지냈다. 39세(1548)에 순창의 점암촌 백방산 자락에 훈몽재訓蒙

齋를 지어 제자들에게 강학을 하였으나 고향 마을²⁵⁾은 물론이고 호남시단의 중심지였던 담양 소쇄원과 면앙정에도 수시로 찾아와 머물곤 했다.²⁶⁾ 자연스럽게 담양지역 누정들을 무대로 형성되었던 시단활동을 즐겨했으며, 그곳에서는 16세기 호남시단의 경향성²⁷⁾을 형성할 정도로 누정 중심의 산수시 저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인후는 소쇄원과 관련해서 시문 78수와 양산보의 만사 4편 6수를 지었는데 거기에는 「소쇄원 48영」이 포함되어 있고, 「면앙정 30영」을 짓기도 했다.²⁸⁾ 그중 「소쇄원 48영」과 「면앙정 30영」은 세속과 멀리 떨어진 곳, 또는 신선이나 부처 등이 머무는 무릉도원으로 표현한 곳²⁹⁾이 여러 군데 있고, 그 나머지도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가 많아 전형적인 호남시단의 산수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면앙정 30영」중에서 김인후의 고향 황룡강변에 위치한 용진산과 어등산의 정경을 읊은 「용진기봉湧珍奇峯」과 「어등모우魚登暮雨」에서는 좀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신선이나 무릉도원과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세속에서도 무척 친근하고 다정한 가족을 노래하는 듯한 느낌까지 든다. 30영 중 용진산 정경을 1영으로 놓은 것도 남다른 애정으로 보인다.

「용진기봉湧珍奇峯」과 「어등모우魚登暮雨」를 살펴보겠다.

용진기봉湧珍奇峯

一室雙尖北

실(室)이 바로 쌍첨의 북쪽이라서

晨昏見秀色

아침 저녁 빼어난 빛을 보누나.

亭西望愈奇

서쪽에서 바라보면 더 기특하니

地勢還憐側³⁰⁾

땅 형세 기운 것이 되레 귀엽네.

어등모우魚登暮雨

微茫大野頭

가물가물 아득아득 한들머리에

向暮魚登雨

저 어등산 저물녘 비가 내리네.

不用捲珠簾

구태어 주렴을 걸으려 마오

餘涼來棟宇³¹⁾

선들 기운 멀리 뻗혀 당에 드는 걸.

「면앙정 30영」중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등산과 용진산의 정경을 시로 읊었지만 두 작품 모두 작가는 아주 근거리를 묘사한 듯 읊고 있다. 그것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작가의 마음에서 이는 친근감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인후의 고향마을 장성 대맥동은 용진산과 어등산이 북동쪽 자

락을 내어주어 품고 있는 땅이다. 그러다보니 시에 느껴지는 분위기가 면앙정에서 아스라이 멀리 바라보고 시로 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향에서 아침저녁으로 바라보며 함께하는 살붙이처럼 표현하고 말했다. 쌍첨雙尖의 봉우리가 기울어진 용진산이 오히려 어린 여동생을 대하는 듯 가련하고 사랑스러우며, 서늘한 기운을 방안까지 들여 주는 어등산에 비가 내리는 풍경마저도 그저 일상인 듯하다. “가물가물 아득아득 한들머리에”로 원거리 묘사를 한 부분만이 오히려 동떨어져 보인다. 전체적으로 과장된 찬사 없이 담담한 표현만으로도 순정하고 자연스럽다.

그의 시를 좀 더 살펴보겠다.

절구絶句

浴罷晴漪風詠歸

맑은 물에 땀을 감고 풍영하며 돌아오니

煙花三月試春衣

삼월이라 꽃철에 봄옷을 갖 입었네.

何如紅葉漫山處

어떠한가 붉은잎 온 산을 덮었는데

時把漁竿下晚磯³²⁾

낚대를 손에 들고 낚시터로 내려감이.

촌경村景

秋盡園林木葉稀

가을 다한 동산숲에 나뭇잎 드문드문

當窓旭日轉晴暉

창 마주쳐 맑은 해는 갠 빛을 굴리누나.

層巒掩映生新畫

층층 뒤편 어리비쳐 새 그림 생겼는데

澹澹長空鳥獨飛³³⁾

해맑은 먼 공중에 새는 홀로 날아나네.

두 편의 시 모두 참으로 여유롭고 그림 같은 정경이다. 맑은 물에 목욕하고 시를 읊으며 돌아와서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낚시를 하러 내려가는 모습이 강촌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시에서도 그야말로 촌경의 묘사가 넘치지도 협소하지도 않을 만큼 유여하다. 층층이 산들이 겹쳐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었고 그 허공에 새 한 마리가 조금은 외로워 보이지만 충분히 청정한 안식처다. 그것이 바로 김인후가 그린 고향의 이미지이다.

어우름의 매개체 자연

김인후의 황룡강변 소재 시는 담양권 정자문학에서 보여주는 집단적 풍류객으로서 자연을 대상으로 저작한 시와는 분명히 내면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에게 고향산천은 관직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최종적으로 의탁하고 살아야 할 생활터전이다. 타향에 있을 때는 틈만 나면 귀거래를 읊을 정도로 애정과 그리움의 공간이었지만, 그에 상응할 만큼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다양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문인들이 자연을 접하고 시로 표현할 때는 흥취가 일기 마련이다. 김인후는 자연에서 발한 그 흥을 또 다른 흥으로 연결시키고, 끝에는 인간과의 만남으로 귀결하는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 시에서 만날 수 있다.

즉사차남서계운(即事次南西溪韻)

江村勝事此無多

강촌이라 좋은 일이 여기처럼 많을손가

百里洋洋絃誦歌

백 리를 넘실대는 현송(絃誦)의 노래로세.

溪老一心文會客

계로(溪老)는 오직 시로 객을 모이게 하니

好風輕拂麴塵波³⁴⁾

좋은 바람 살짝 스쳐 술 항아리 물결 지네.

유일생치시색주화지(有一生致詩索酒和之)

悄悄孤懷莫與收

쓸쓸한 외로운 회포 함께 거들 길 없으니

滿江雲雨麥方秋

강에 가득 비구름에 보리 한창 가을일래.

尊中有酒空凝綠

동이 속에 술이 있어 파랗게 엉겼으니

乘興何妨共一甌³⁵⁾

흥을 타서 한 잔을 함께 함이 어떨는지.

강촌이라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자연이라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자연에 안겨서 흥이 돌면 술과 시가 동반되며 그 시와 술도 혼자가 아니라 객과 함께 하길 원한다. 김인후에게 있어 자연은 마음에 흥을 유발하는 시발점이며 인간과 함께하기 위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술도 세사를 잊기 위함이나 초극하기 위해 마시는 기대승과는 다른 점이 있다.

두 번째 시 역시 강에 비구름이 가득한 풍경에도 또 보리가 한창 익어 보기 좋게 물결치는 고향의 모습에서도 김인후는 흥에 취하게 된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흥을 타서 한 잔 술을 그 누구하고든 나누고 싶어 한다. 김인후의 생활 속에서의 낙樂의 귀결점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것이다. 고향 마을 대맥동, 즉 황룡강변의 자연은 그 매개 역할의 중심체라고 볼 수 있다.

울분의 토로처와 은둔 공간

김인후는 일찍이 신동이라고 불릴 만큼 영특하였고, 기대승의 숙부이자 김인후가 스스로 모셨던 복재(服齋) 기준(奇遵)(1492~1521, 기묘명현(己卯名賢) 중의 한 사람)로부터 기동(奇童)이라는 칭찬과 함께 장차 세자신(世子臣)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들을 정도였다. 그에 맞게 34세에는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世子

侍講院設書에 올라 드디어 훗날 인종과 돈후한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된다. 그 후 연이어 영전을 거듭했으나 조정에 환란이 닥칠 것을 예견하고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고향 근처인 옥과현감으로 부임한다. 그 사이 중종의 승하와 즉위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접한 인종의 승하(1545년) 소식은 김인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거듭되는 사화로 피폐해진 조정에서 사람의 한 사람으로 힘겹게 지내야했던 김인후는 성군의 자질을 보이는 제자 인종에게 장차 나라와 자신의 꿈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³⁶⁾ 그 꿈의 좌절은 김인후에게 있어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비록 그날로 관직을 버리고 고향 산천에 몸을 부리는 범인의 삶을 택했지만, 펼치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과 한 서린 울분은 실생활에서는 물론 문학작품에서도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화정군시和鄭君詩

三年一病死爲濱

삼년을 병에 누워 죽음이 문턱이라

不覺湖山二度春

알고보니 강산에 봄이 두 번 지났구려.

却謝阮生疏禮法

예법에 생소한 이 완적을 어찌리카

儘教夫子獨全眞³⁷⁾

우리 님은 진실로 참을 혼자 보전했오.

병학病鶴

山畔哀鳴知者誰

산 언덕에 슬피 운들 아는 자가 뉘라더뇨

還堪垂翅倚枯枝

날개를 드리운 채 마른 가지 기댔었네.

回看天際雲猶迴

하늘 가를 바라보니 구름은 아스랑다

萬里歸心空自持³⁸⁾

만리를 날을 생각 부질없이 가졌구려.

김인후의 첫 번째 시는 강산에 봄이 두 번이나 지난지도 모르고 고향에 은둔하며 인종에 대한 충절의 사무침이 병이되어버린 마음을 내보이는 시이다. 그만큼 김인후는 고향으로 돌아와 외출을 삼가고 술로 세월을 보내며³⁹⁾ 처절한 은둔생활을 했다. 두 번째 시 역시 낙향을 한 후 황룡 강변 산속에 들어가 술에 취해 울분을 품어내며 지내는 모습이 잘 담겨있다. 마치 굴원의 '리소離騷'의 광경을 보는 듯도 하다.⁴⁰⁾ 그는 인종이 승하한 여름과 가을이 교차되는 시기이면 책과 손님을 끊고 몹시 슬퍼하며, 집의 남쪽에 있는 난산卵山 속에 들어가 밤새도록 통곡하고 돌아와 의지할 데가 없는 듯이 하였다.⁴¹⁾ 김인후는 그 시절의 자신을 차고 마른 가지에 기댄 한 마리의 새에 비유하면서 한 때 만 리를 날아오를 생각을 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김인후에게 있어 고향 황룡강변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새가 목 놓아 울

수 있는 곳이며, 지칠 때면 날개를 접고 기댈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기대승 시에 담긴 이미지

유유자적한 일상의 공간

기대승은 시끄러운 정계에 있을 때부터 늘 귀거래를 꿈꾸었고 틈만 나면 시행을 하곤 했다. 그만큼 고향에서의 유유자적한 생활을 갈망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고향을 떠나 있었던 시간도 7년여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고향 황룡강변에서의 강촌 생활 역시 그만큼 혼연스러우며, 자연과 세월 속에 오롯이 자신을 내맡기고 희로애락을 맞이하는 일상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동통판성주숙악암 용류생운서별회同

通判城主宿樂菴 用柳生韻敘別懷

小菴開勝地

작은 덧집 경치 빼어난 곳에 열렸으니

棲息更何求

깃들어 살면서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樂在尋遺緒

즐거움은 유서를 찾음에 있으니

朋來共此遊

벗님 오면 이 놀이 함께 하리라

秋風吹不盡

가을바람 끝없이 불어오고

新月影纔流

초승달 그림자 처음 흐르네

離舍人間事

이별과 만남은 인간의 일이라

茫然任去留⁴²⁾

떠나고 머물 망연히 맡기노라

(중략)

백운정전양통판사기白雲亭餞楊通判 士奇

山下孤亭盡日留

산 아래 외로운 정자에 종일토록 머무니

綠筠黃菊使人愁

푸른 대 누런 국화 사람을 시름 짓게 한다

天涯物色還佳節

하늘 가 물색은 좋은 질서 만났는데

壺裏風光更杪秋

선경의 풍광은 다시 늦가을 되었구나

(중략)

悲歡自是十年事

슬퍼하고 기뻐함 스스로 천 년의 일이라

仙夢悠悠海外州⁴³⁾

바다 밖 고을에 신선의 꿈만 유유하리라

(중략)

기대승의 두 편의 시인데 첫 번째 시는 그가 고향인 두말(지금의 두정동斗亭洞)에 지어 거주했던 '낙암'에서 유생과의 이별의 회포를 읊은 것이고, 두 번째 시 역시 같은 곳에 그가 지어 운영하던 '백운정'에서 양사기를 전송하며 지은 시이다. 가을바람이 끝없이 불어오

는 것도, 초승달의 그림자가 흐르는 것도, 또한 그렇게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친구와 만나 노닐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일상에 대해 안분지족하고 있으니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인간의 일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늘 가 물색도, 취해서 보는 풍광이 다시 늦가을이 되는 것도 모두가 자연의 원천적인 질서이며, 그 모든 질서는 스스로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영구불변하게 흘러가는 것이니 자신도 그 자연의 질서에 따라 유유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대승에게 있어 고향의 자연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모두 맡기고 세월과 함께 평생을 함께할 평상의 공간인 것이다.

포용과 생장의 봄

기대승은 유난히 봄 풍경을 시로 많이 읊었다. 『고봉전서』에 들어있는 그의 시는 의아스러울 만큼 봄에 집중되어 있어서 기타의 계절을 배경으로 삼은 시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인仁이 사단四端의 단서가 되듯 만물을 낳는 봄은 사계절에 존재하는 모든 시물을 관류한다.⁴⁴⁾고 보았다. 즉 봄은 여름, 가을, 겨울을 머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승은 고향의 풍경을 보면서도 사계절의 원천이 되어주는 봄의 흥취에 그토록 젖어들어 시로 남긴 듯하다.

각아래춘후역이 覺夜來春候亦已...

物色含春意

만물의 빛깔 봄뜻을 머금어

昭蘇眼忽開

밝고 고와 눈이 활짝 열린다

日華初泛柳

햇별은 버들가지에 먼저 나타나고

風氣欲舒梅

바람은 매화꽃 피게 하려 한다

麗景催吟筆

고운 날은 읊는 붓을 재촉하고

殘年急把盃⁴⁵⁾

늙은이는 급히 술잔을 잡누나(중략)

만흥우漫興又

閉門終夜雨

문밖에 밤새도록 비내리더니

野水綠生漪

들판에 푸른 물결 넘실거리네

土潤耕初利

흙이 불어 밭이 잘 갈리기 시작하고

風暄草漸穠

바람이 따듯하여 풀도 점점 성하네

小桃紅入萼

복숭아 꽃망을 불그레하고

細柳翠添絲

버드나무 늘어진 가지 푸르구나

爲報幽棲友

숨어 사는 친구에게 알리어

須應把酒卮⁴⁶⁾

모름지기 함께 술잔을 잡으리라

만물이 휘황한 빛을 내는 것은 다름 아닌 이치대로 포용하고 순환하는 봄의 뜻이다. 싹틔우고 성장하고 노쇠하고 죽는 사계의 순환이치에서 그 근원이 되는 봄, 기대승은 그 포용과 탄생의 눈부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두 번째 시에서도 소생의 근원이며 모태의 역할을 해주는 봄비, 고운 흙, 미풍, 푸르른 풀과 나무들과 같은 봄의 상징물을 주저없이 나열하고 있고, 그것들을 혼자 보기가 벅차 친구를 불러 술잔을 기울이겠다고 외치고 있다. 그와 같이 기대승에게 있어 고향인 황룡강변의 봄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마음껏 의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용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꿈과 운둔의 갈등 공간

기대승은 벼슬길에 나서기 전부터 이미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의 가계를 살펴보면 행주산성이 있는 지금의 고양 땅에서 대대손손 경사京師로 살아오다가 광주로 옮겨올 때는 이미 폐족이 되어 있었다. 기묘사회에 억류된 숙부 기준寄遷의 처형處刑은 그 만큼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기대승이 32세라는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오른 이유도 그

와 무관하지 않다. 25세에 알성시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었으나 당시 시관試官이었던 윤원형尹元衡이 사림파(기묘사회 연류가족)의 등용을 꺼린 탓으로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그 후 32세(1558년) 10월에 문과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승문원부정자 직을 내려 받았으나 그해 11월 모두 버리고 낙향하여 36세(1562년) 12월까지 고향에 머물렀던⁴⁷⁾ 이유 역시 그런 상처들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후로도 기회만 있으면 낙향을 꿈꾸었고 또 과감하게 실현을 했다. 그렇게 관료 생활을 시작해서 생을 마칠 때까지 갈등과 한으로 얼룩져 있었던 기대승은 그가 고향에서 읊은 시에서도 은거의 고통과 출사에 대한 갈등을 곳곳에서 표출하고 있다.

우거寓居

此身於世轉支離

이 몸 이 세상에 갈수록 지루하여

臥病江湖春復歸

강호에 누웠으니 봄이 다시 돌아오네.

枕上幾成千里夢

베개 위에 몇 차례나 천 리 꿈 꾸었나

卷中閑記數年詩

책 속에는 한가히 몇 해 시를 기록한다.

梅畬雪意花猶拆

매화는 눈을 머금고도 오히려 꽃이 피는데

柳帶風威絮不飛

버들은 바람을 타고도 버들솜이 날리지 않

는구나.

欲待日溫遊野外

날이 따뜻해지면 들 밖에 노닐면서

一壺元自瀉幽期⁴⁸⁾

한 병 술로 속마음을 쏟으련다.

만성漫成

脩竹千竿立

긴 대나무 천 그루가 서 있고

孤松萬葉低

외로운 솔 일만 잎이 늘어졌네.

北南吾自解

북쪽 남쪽 내 스스로 아는데

出入客都迷

나가고 들어옴 손님은 모두 헤매네

小園秋容盡

채마밭엔 가을빛 다하고

柴門月色淒

사립문엔 달빛이 차갑도다.

從憂霜雪至

서리와 눈 이틀까 따라서 걱정하니

深臥聽鳴鷄⁴⁹⁾

깊이 누워 닭 우는 소리 듣노라.

두 편 모두 황룡강이 내려다보이는 낙암에서 쓴 시이다. 세상이 재미가 없어 강호에 은거하여 살고 있지만, 서울 일이나 또는 시골의 일이나 모두 알고 있다고 한다. 즉 은거하

고는 있지만, 조정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베개 위에서 환로의 화려함에 대한 꿈을 몇 차례씩이나 꾸어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서리와 눈을 맞을까 걱정이 되어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잠을 못 이루기도 한다. 결국엔 흐르는 세월을 따라 술로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모습이 처량하게 다가온다. 그렇게 기대승에게 있어 황룡강변의 풍경은 찬란한 봄의 이미지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의 두 시에서처럼 지루하고, 가을빛 다하여 차가운 은둔지이자 갈등의 공간이기도 하다.

나가며

어등산을 감싸고도는 황룡강과 극락강 주변은 16세기 호남시단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여러 문인들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아름다운 두 강변에 누정을 짓고 그 땅의 산수와 정서를 많은 시로 남겼는데, 그동안 무등산문학권에 가려져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그 어등산문학권 연구의 일환으로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김인후와 기대승의 황룡강변 소재 시들을 분석해 보았다.

김인후 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담박하고 순정한 흥취를 과함이나 들뜸이 없이 정감 있게 표출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화평하게 화합하는 상태를 최상으로 여기는 천인합

일의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기대승의 시는 김인후에 비해 좀 더 직편한 만흥에 젖어 현실을 초극하려고까지 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 감정 역시 비유나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호탕하게 토로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달하면서 낭만적 감성을 즐겨 나타냈던 호남시단의 특성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시에 담긴 황룡강변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김인후 시의 경우는 친근하고 유여한 안식처로서의 이미지, 자연에서 발한 흥취를 통하여 만물이 함께 어우러지길 소망하는 매개체적 자연의 이미지, 좌절된 꿈으로 인한 울분을 고향산천에 숨어 마음껏 토로하는 은둔지의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또한 기대승의 시에는 유유자적한 일상 공간으로서 이미지, 만물을 포용하고 생장시키는 봄의 이미지, 환로와 은둔의 갈등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김인후와 기대승의 황룡강변 소재의 시는 산수자연이 비속세적인 신선계와 같은 공간으로 인식했던 호남시단의 집단적 경향시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풍류객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터전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선비들의 생활시적인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사람의 시는 시공간면에서나 사상 철학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성정이나 기질적인 차이만큼이나 다채로웠고 상당부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주석

- 1) 김인후는 장성현 대맥동大麥洞(현 장성군 황룡면 맥동리)에서, 기대승은 광주 소고룡리 송현동(현 신룡리 용동마을)에서 출생했는데 두 마을은 황룡강변에 이웃하여 자리 잡고 있다.
- 2) 무오년(1558) 고봉이 32세의 나이로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던 중 호남 성리학의 대가인 일재—齋 이항李恒(1499~1576)과 만나 '태극설'에 대해 논변하였으나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다. 다시 귀향하며 재논의하였으나 마찬가지였다. 그 뒤 하서를 방문하여 같은 논의를 하였는데 하서의 견해는 고봉과 일치하였다. 하서는 태극이 음양과 섞이지 않는다는 고봉의 학설을 지지했다. (정병련, 『고봉 선생의 생애와 학문』, 전남대학교출판부, 2006, 57면.)
- 3) 金東河, 「하서 김인후 선생의 생애와 교유 양상」, 『고시가연구』,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60면.
- 4) 김인후와 기대승의 문집에는 자연이나 전원 소재의 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두 사람은 우연히도 40여 년씩이나 되는 긴 세월을 온전하게 고향에서 머물렀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그중 김인후는 고향 장성현 대맥동에서 뿐만 아니라 순창에서 병행하여 머물면서 작시를 했기 때문에 지명이나 사건으로 추측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황룡강변 소재의 시詩만을 가려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본고에 인용한 시도 그런 점을 감안하였음을 밝힌다. 그에 비해 기대승의 시詩는 정사, 교유관계, 학문에 대한 소재와 여행지에서 저작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가 고향에서 저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 5) 안진오, 「무등산권 사람문화의 특징」, 『고봉의 인식체계와 남도인의 유교정신』, 고봉학술원, 2001, 84~85면.
- 6) 박준규 교수가 분석한 면양정 시단을 살펴보면 담양에 송순, 양산보, 정철, 김윤제, 김성원, 오겸, 송

- 인, 송흙, 광주에 정만중, 기대승, 고경명, 성수집, 김언거, 나주에 임형수, 임제, 유충정, 장성에 김인후, 광산에 박상, 박우, 광양에 최산두, 해남에 윤구, 임억령, 유성춘, 태인에 송세림, 김약해, 장수에 정응두, 남원에 안처순, 익산에 송세양 등으로 호남출신이거나 호남에 살던 사람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호남권 시단이라고 볼 수 있다.
- 7) 황룡강과 극락강이 합수되는 구강九江 부근에서 마주보이는 현 '서창'은 석천 임억령林億齡(1496~1568)과 면양 송순宋純(1493~1582)을 배출해내 호남시단의 조종祖宗 역할을 한 놀재訥齋 박상朴祥(1474~1530)과 그의 조카 사암思菴 박순朴淳(1523~1589)의 본거지이고, 그 맞은편 본덕동 마곡마을에는 설강雪江 유사柳泗(1502~1571)가 '호가정浩歌亭'을 지어 많은 시인묵객들이 머물렀다. 또한 신창동 극락강변 선창에는 김언거金彦珥(1503~1584)가 '풍영정風詠亭'을 세웠고, 황룡강변 역시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1519~1581)이 박산마을에 '임류정臨流亭'을, 고봉 기대승이 광주 소고룡리에 '낙암정樂菴亭'과 '백운정白雲亭'을, 하서 김인후가 장성현 대맥동에 '백화정百花亭'을 지어 운영했다.(풍영정과 호가정에는 여러 문인들의 시가 걸려있어서 그 시절 두 정자의 호화로움을 알려주고 있다. 풍영정에는 권필權輶, 송흙宋欽, 유희춘柳希春, 기대승奇大升, 고경명高敬命, 이덕형李德馨, 김인후金麟厚, 이항李滉, 박광옥朴光玉, 주세붕周世鵬, 박우朴祐 등의 시가, 호가정에는 이안눌李安訥, 오겸吳謙, 이재순李載純, 김성원金成遠, 김재석金載石, 최수화崔洙華, 최윤환崔允煥의 시가들이 걸려있다.)
- 8) 金麟厚, 『河西全集』中, 卷之 7, 〈聞杜鵑〉, 필암서원, 1993, 248면.(이후는 『전집全集』이라 칭함)
- 9) 『全集』中, 卷之7, 〈白正字大裕見訪〉, 248면.
- 10) 『全集』中, 卷之9, 〈贈尹景仁〉, 482면.
- 11) 곽신환, 「기고봉의 자연관」, 『전통과 현실』, 고봉학원, 1991, 129~130면.
- 12) 『全集』下, 속편, 〈自然歌〉, 434~435면. (〈자연가自然歌〉는 해동가요海東歌謠와 대동풍이大東風雅에 우암 송시열宋時烈(1607~1689)의 작품으로도 실려 있는데 『河西全集』에 의하면 김인후의 후손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단서를 제공하여 김인후 소작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13) 『全集』中, 卷之7, 〈贈金君〉, 293면.
- 14) 『全集』中, 卷之9, 〈晴後〉, 474면.
- 15) 『全書』1, 제1권, 〈漫興〉, 63면.
- 16) 『全書』1, 제1권, 〈吟贈居士 文〉, 74면.
- 17) 조정림, 「고봉 기대승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66~67면.
- 18) 김경호, 「고봉 기대승의 낙향과 삶으로서의 철학」, 『한국인물사연구』, 한국인물사연구소, 2012, 171면.
- 19) 기대승과 김인후는 '이기공발설理氣共發說'을 옹호했으며, 시詩에 나타나는 '흥興'은 칠정七情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았다. (金東俊, 「고봉 기대승의 시 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한국한시학회, 2001, 94면.)
- 20) 고향산천에 낙암정樂菴亭, 백운정白雲亭, 귀전암歸全庵 등을 지어 운영했는데 "낙암터에서 바라보면 황룡강의 물줄기가 교룡蛟龍처럼 눈앞을 지나가고 광활한 하늘과 땅이 끝없이 전개되어 있다." (鄭兩連, 앞의 책, 전남대학교출판부, 2006, 110면.)
- 21) 임이택, 「기대승의 생平和 정치사상」,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1986, 18면.
- 22) 『全書』1, 제1권, 〈昔東坡謫居儋耳有詩云……(又)〉, 155~156면.
- 23) 『全書』1, 제1권, 〈小軒幽臥情興茫然率爾成詩奉呈一笑大升自重之丈〉, 64면.
- 24) 김동준, 앞의 논문, 한국한시학회, 2001, 95면.
- 25) 출생지인 장성현 대맥동에 백화정百花亭을 지어 산수와 벗하며 시문을 읊고 심신을 닦았다.
- 26) "김인후가 소쇄원에 출입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이른 시기로 보인다. 그의 나이 18세 때 기묘사화로 화순에 유배와 있던 최산두를 찾아가 공부를 했는데, 그곳에서 장성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 는 어김없이 소쇄원에 들러 달이 넘도록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박명희,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영 고」, 『우리말 글』, 우리말글학회, 2002, 272면.) 이후로도 소쇄원의 주인 양산보梁山甫와는 자식들을 결혼시켜 사돈이 될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다.
- 27) 담양의 누정들을 중심으로 활동한 16세기 호남시인들의 산수시 특성은 산수자연을 신선세계의 아름다움과 같다고 인식되는 한편 세속적인 욕망이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안락한 공간으로 보고 있다. (김기림, 「16세기 호남시인들의 산수시 고찰」, 『동양고전연구』, 동양고전학회, 1996, 40~53면.)
- 28) 박명희, 앞의 논문, 우리말글학회, 2002, 272면.
- 29) 「소쇄원 48영」 중에서는 5영 「석경반위石逕攀危」, 8영 「용운수대春雲水碓」, 9영 「투죽위교透竹危橋」, 26영 「단교쌍송斷橋雙松」, 36영 「도오춘효挑塢春曉」 등에서, 「면양정 30영」 중에서는 5영 「불대낙조佛臺落照」, 10영 「옹암고표巒巖孤標」, 13영 「석불소종石佛疎鐘」, 15영 「혈포효무穴浦曉霧」, 24영 「극포평사極浦平沙」 등에 나타남.
- 30) 『全集』上, 卷之5, 「俛仰亭 30詠」, 683면.
- 31) 『全集』上, 卷之5, 「俛仰亭 30詠」, 686면.
- 32) 『全集』中, 卷之7, 「絕句」, 181면.
- 33) 『全集』中, 卷之7, 「村景」, 232면.
- 34) 『全集』中, 卷之7, 「卽事次南西溪韻」, 249면.
- 35) 『全集』中, 卷之7, 〈有一生致詩索酒和之〉, 234면.
- 36) “인종이 승하하자 곧바로 벼슬을 던지고 고향인 장성현 대맥동에 들어가 명종이 흥분관 교리로 임명하고자 불렀지만 병을 핑계로 응하지 않았다. 그 후 인종의 기일日만 되면 산골짜기에 들어가 통곡을 하며 저녁이 다 지나서야 돌아왔다. 김인후는 유명遺命으로 ‘옥과현감’ 이후의 관직은 쓰지 말라고 했다.”(『全集』下, 卷之2, 「敘述」, 277~278면.
- 37) 『全集』中, 卷之7, 「和鄭君詩」, 283면.
- 38) 『全集』中, 卷之7, 「病鶴」, 312면.
- 39) 퇴계退溪가 김인후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나는 김하서와 성균관과 홍문관에서 일하였는데… (중략). 중년에 시와 술에 빠져 나는 애석하게 여겼습니다.(중략)”(『全集』下, 부록 卷之2, 「敘述」, 269~270면.
- 40) 실제로 김인후는 18세에 화순에 귀향을 온 최산두崔山斗에게 『초사楚辭』를 배웠으며, (박명희, 앞의 논문, 우리말글학회, 2002, 272면.) 또 『초사楚辭』를 읽고 사위인 경범(조희문趙希文)에게 시를 지어 보였는데, 굴원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읊은 「독초사차진유선운시경범구화讀楚辭次陳惟善韻示景范求和」가 그의 전집에 들어있다.(『全集』中, 권지6, 〈讀楚辭次陳惟善韻示景范求和〉, 116면.)
- 41) 『全集』하, 부록 卷之1, 「行狀」, 228면.
- 42) 『全書』2, 속집 제1권, 「同通判城主宿樂菴 用柳生韻敘別懷」, 412~412면.
- 43) 『全書』2, 속집 제1권, 「白雲亭餞楊通判 士奇」, 358~359면.
- 44) 김동준, 앞의 논문, 한국한시학회, 2001, 97면.
- 45) 『全書』1, 제1권, 「微雨不覺夜來 春候亦已…」, 81면.
- 46) 『全書』1, 「漫興 又」, 63~64면.
- 47) 『全書』1, 목판본, 「고봉선생연보」, 7~29면.
- 48) 『全書』1, 제1권, 「寓居」, 150면.
- 49) 『全書』2, 속집 제1권, 「漫成」, 410면.

유학전통儒學傳統의 계승繼承과 유림儒林의 역할役割

오세인(전 광주고검장)

서언

유서 깊은 필암서원에서 문정공 김인후선생의 얼을 되새기고 업적을 기리는 향사에 현관으로 참여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아울러 지역과 사문斯門의 여러 어른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분수에 넘치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몸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글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삶의 현장에서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구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26년간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법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하는 동안 우연한 기회에 유학의 가르침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을 뵈게 되어 그분들이 전하는 경전의 몇 구절을 공부해본 것이 전부입니다.

검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인후선생의 혈연적 학문적 후예들께서 보내오신 천정薦定을 외람되이 받아들인 것은 유학의 전통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입니다. 저의 작은 동참이 유학의 앞날

에 한 줌의 보탬이 되고 유구하게 이어져온 성현들의 전통이 물질적 이욕 앞에서 흩어지기 전에 그 계승방안을 논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문정공의 면목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당시 대학가에서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자는 분위기가 크게 일었고, 그에 따라 그 동안 외면 받고 있던 월북작가들을 새롭게 조명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월북 작가 벽초 홍명희의 『임궽정』이라는 대하소설을 읽게 되었는데,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인종 임금께서 승하하셨을 때 장성에 계시던 문정공께서 식음을 폐하고 날마다 북향재배를 올리셨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대학 초년생 시절 공씨의 충절을 묘사한 그 대목은 저에게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그때 저는 공을 모신 이곳 필암서원을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 2001년 공주지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경은耕隱 김순金旬선생으로부터 논어를 배우면서 전국의 서원을 탐방하려는 계획을 세웠

고 그때 필암서원을 다녀온 것이 저의 첫 발 걸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2015년 광주고검장으로 부임하여 필암서원을 참배하고 노강蘆江선생과의 인연을 통해 이곳 장성과의 연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듯이 장성은 남도 학문의 중심지이며 그렇게 문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문정공의 정신과 학문의 업적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학의 본령과 사회적 역할

안자顔子께서는 “순인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냐”(순하인아舜何人也 여하인야子何人也)라고 하시면서 순임금과 같은 성인이 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이런 뜻을 받들어 율곡선생도 『격몽요결』 입지장立志章에서 중인衆人과 성인聖人의 본성이 같음을 들어 학문에 뜻을 둔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 성인이 될 것을 기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초학初學 선수립지先須立志 필이성인자기必以聖人自期).

아시는 바와 같이 유학의 본질은 스스로를 갈고닦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본성本性을 회복하여 성인과 같은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유학의 출발이자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학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구제신反求諸身의 자세

로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자기에게서 구하며 결코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격의 완성보다는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인의보다는 이욕을 앞세우며 배려보다는 경쟁에서의 승리를 우선시합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너나할 것 없이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탐하며 권력의 쟁취를 인생의 목표로 여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입에 올리기 어려운 패륜이 신문을 장식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삶이 힘든 것은 남 탓이며 내가 뒤쳐진 것은 세상의 탓이라 여깁니다.

물론 유학의 이념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도 범죄가 있었고 권력다툼이 있었고 이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통 시대에는 적어도 지식인들이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권력의 남용을 꾸짖고 위정자들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의와 염치가 사람들의 방종을 제어하고 무분별한 이욕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기능과 역할은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권력의 독주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제도들이지만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성을 순화醇化하고 윤리성을 제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에 의한 문제해결은 명백한 한계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성순화와 윤리성 제고에 있어서 유학의 이념과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교육에 의한 유교적 도덕률(道德律)의 대중적 확산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유용한 핵심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법 또는 홍보방법으로 유튜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균관에서도 유림방송(YCN)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유림들의 활동, 성균관 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의 조회수와 구독자수는 수십명 정도에 불과해서 너무나 민망한 수준입니다. 하서선생과 필암서원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있지만 그 역시 조회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이 망한 것은 유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해이자 왜곡입니다. 유학과 조선의 망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수양을 통한 본연지성(本然之性)의 회복과 인격적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존속과 유지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어찌 망국의 원인이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망하는 것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

지도층의 비전 부재, 국제정세에 대한 오판, 새로운 문물에 대한 무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체제유지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조선도 이런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유학의 책임이었습니까? 18세기 조선의 융성을 이끌었던 정조대왕은 매우 탁월한 유교적 소양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정조는 경전 해석과 유학의 이해에 있어서 경연(經筵)에 참가한 학자들을 압도한 분이었습니다. 만약 유학이 망국의 원인이라면 정조대왕 치세에서 조선이 찬란한 국가적 부흥과 문화적 업적을 이룬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학이 민생을 외면하고 공리공담(空理空談)만 일삼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학은 정당한 부의 형성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민생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았습다. 공자님의 제자 자공(子貢)은 상업과 교역을 통해 큰 부를 쌓았고 그것이 공자학단을 유지하는 큰 자산이 되었는데 공자님은 결코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다. 공자님은 백성들의 신뢰를 전제로 국방(족병(足兵))보다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것(족식(足食))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시대에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이 끊임없이 논의된 것도 생산력을 증진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진정한 유학자는 결코 백성의 고통과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다.

유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는 인식이 형성된 가장 큰 원인은 일제日帝의 식민사관 때문입니다. 일제는 조선을 병탄한 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하여 관변 학자들을 동원해 봉당정치를 권력싸움으로 비하하고 유학으로 무장한 위정자들이 공리공론을 일삼으며 민생을 외면하고 유생들이 백성의 고향을 쥐어짠다는 식의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소위 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학교를 만들어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했고 그것이 해방 이후 역사교육에도 긴 잔재를 드리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유학이념 때문에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자학적 역사관에 깊이 몰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유학의 기본은 내 몸을 닦아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갈고 닦아서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 하늘이 부여한 본연의 성을 회복하는 것, 명덕明德을 밝히는 것, 그것이 유학의 요체입니다.

조선이 망할 당시 위정자들의 지배적인 이념이 유학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이 망한 것은 위정자들의 정치적 실책을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유학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도 지배적 이념이 있습니다. 유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한 것은 유대교 때문이

고, 프랑스의 부르봉왕조가 망한 것은 기독교 때문이며, 신라와 고려가 망한 것은 불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역사가도 그런 식의 단편적인 역사인식에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유학이 쇠퇴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런 식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유학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학문, 현실성 없는 고담준론, 민생에 대한 외면, 자기고집과 당파싸움, 세도정치와 권력다툼, 여성과 백성에 대한 억압 등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유학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이런 이미지들을 타파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유학은 외롭고 힘든 미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유림이 힘을 모아 이 잘못된 인식과 역사교육을 타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전통의 계승과 유림사회의 과제

고을이 잘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여인네들의 다듬이질 소리, 그리고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그 중 글 읽는 소리는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는 학문의 융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대화 이후 돈을 벌고 지식을 확충하는 교육은 확대되었지만

자기수양自己修養을 최우선으로 삼는 학문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이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통식 서당교육書堂教育을 하는 곳이 수십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규 공교육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학교교육 대신 오직 서당교육만을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유학의 진흥과 현대화를 위해 이 서당교육의 전승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당교육은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닌 올바른 인성人性의 함양을 지향합니다. 강경講經을 통해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학동들이 함께 공부함으로써 장유長幼의 예절을 익힙니다. 쇄소응대澗浦應對의 소양을 육성하고 용사隆師의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도 곧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당교육은 돈벌이가 되는 직업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 받고 있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학부모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서당은 갱정유도회라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균관을 비롯한 유림사회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유교적 전통을 이어왔다는 자부심을 가져 왔습니다. 문묘의 석전대제는 우리

나라가 아니었다면 오래 전에 맥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향교와 서원의 향사도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전통입니다. 그러나 학문의 진흥 없는 석전과 향사만으로 유학전통이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치르는 백일장이나 예절교육, 다도茶道, 충효교실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는 향교와 서원에 체계적인 강학講學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존현과 강학은 유학전통의 양대 축입니다. 존현의 전통이 향사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학문하는 풍토 없이는 진정한 유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中國에서는 유교정전을 가르치는 학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사서四書는 물론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줄줄 외는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전통 왕조의 멸망과 문화혁명 이후 사라졌던 글 읽는 문화가 중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강학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를 훨씬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보존해온 존현의 전통과 결합하여 유학의 진흥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강학의 전통을 강력하게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전통은 절름발이 전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은퇴 후 지역사회에서 작은 서당을 운영해보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아동들의 윤리교육 외에도 젊은 학자들

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키워보고 싶은 의욕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서당교육 또는 서당에서의 글 읽는 소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전국적으로 농어민들의 노동요를 채록하고 민요를 문화재로 지정해 왔습니다. 자게나 늦그릇 제작과 같은 기능적인 기술도 문화재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고 전수자를 육성하는 마당에 하물며 수백 년간 정신문화의 기초가 된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를 문화재로 지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서예書藝의 진흥과 그 전통의 계승을 지원하기 위한 서예진흥법을 제정했습니다. 서예전통이 한자문화 속에서

발전해온 역사적 현실을 고려할 때 한문교육의 진흥 없는 서예 지원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교육은 유학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유학을 진흥하기 위한 전통유학진흥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청원하는 것을 유림의 중요한 과제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의 향교와 서원 어느 한군데서라도 예컨대 아동들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으로 강경을 열고 이를 일상화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유림사회의 강력한 의지와 새로운 역할의 모색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김상집 '박회양부에 나타난****하서 김인후의 비분' 강연**

2018년 12월 12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본 회 2019년도(제18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 7월에 필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면 각종 축하행사가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인데, 본 산양회도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벌어진 학술강연에서 김상집회원이 '박회양부에 나타난 하서 김인후의 비분'이라는 연제로 강연했다. 처음으로 새롭게 연구한 발표로, '박회양부'에 숨겨진 하서선생의 깊은 뜻에 공감하여 경청하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어서 김재수 편집주간이 사기열전에 있는 『급암열전』과 관련지어 간략히 설명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벌어진 법조계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하서선생을 모시는 필암서원 춘향제 봉행**초헌관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강론**

하서 김인후선생을 기리는 춘향제가 지난 3월 21일 필암서원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하여 문영수 장성향교 전교, 김평호 나주향교 전교, 이차상 진주향교 원로, 김인수 문정공도유사, 김재수 산양회 상임이사, 김상열 하서학술재단 이사, 김봉수 장성문화원장, 손평기 금계서실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초헌관을 맡았던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은 '유학전통의 계승과 유림의 역할'을 주제로 강론했다. 그는 "유학의 본질은 스스로를 갈고 닦아 인의예지의 본성을 회복하여 성인과 같은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교육에 의한 유교적 도덕률의 대중적 확산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유용한 핵심 처방"이라고 말했다.

수당재단 장성인재 양성 장학금 지급

김인후선생 기리는 필암서원 춘향제에서 고교생 30명에게 필암서원은 4월 21일 춘향제 봉행 후 (재)수당재단(이사장 김상하)이 하서 김인후선생 고향인 장성내 우수 고등학생 30명을 선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수당재단이 전달한 장학금은 각 일백만 원씩 30명에게 3천만 원에 이른다. 수당재단은 장성군의 협조를 얻어 관내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수여했다.

이날 필암서원 춘향제와 장학금 전달식을 총괄한 김인수 도유사는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정신을 이어 받아 자신의 무궁한 가능성을 잘 닦아서 우리 사회에 이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당재단(이사장 김상하)은 하서 김인후 14대손으로 2011년부터 장성군 관내 고등학생 270명에게 2억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수당재단은 앞으로도 매년 장학금으로 장성에 3천만 원, 순창에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인수 도유사, 자랑스런 울산김씨상 수상

김인수 문정공도유사는 2019년 4월 6일 울산김씨 대종회 총회에서 ‘자랑스런 울산김씨상’을 수상하였다. 문정공대종중 도유사로 다년간 봉직하면서 평소 송조 돈종정신을 가지고 가문의 융성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이시며 문묘에 배향되신 하서선생을 주향으로 모시는 필암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진력하여 국가의 품격과 명예를 드높이는데 공헌하였으며, 필암서원과 중국 압록서원의 교류협력 관계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필암서원 고문서 4천여 권을 해제하여 후학의 연구 자료로 활용케 하였으며, 하서선생 문화재로 등록된 목판 6백여 판을 정비하여 후학들이 쉽게 열람하게 하였다.

필암서원의 운영방침을 개선하여 제향위주에서 강학위주로, 중장년 위주에서 청소년 위주로, 과거위주에서 미래위주로 계획함으로써 서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런 울산김씨상’을 수상하였다.

김달수 대종회장 ‘국민훈장목련장’ 수상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이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국가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하였다. 김달수 대종회장은 78년부터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에 입회하여 윤 봉길의사 전집

8권 발간과 상하이 흥커공원 내 윤 봉길의사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개인재산을 기부하고 후원활동을 하였고, 무궁화 심기사업으로 국민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으로 이 상을 받은 것이다.

제28회 수당상 시상식 성료

5월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학술인을 치하하기 위해 5월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수당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상하 수당재단 이사를 비롯해 학계, 정 관계, 재계, 언론계, 민간단체 등 230여 명의贵宾들이 참여하여 수상을 축하하였다.

기초과학부문에는 한국 천문학계의 중력파연구 발전에 공헌한 이 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응용과학 부문에는 의료용 고분자 및 나노입자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분야의 권위자인 권 익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인문사회 부문에는 한국의 자립적 근대화 노력을 규명하여 식민사관 탈피에 공헌한 이 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가 영예의 상을 받았다.

수당상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선생의 인재육성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1971년에 제정된 상이다. 현재까지 해당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51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2019년 춘향제 성금

성명	직위 및 주소	금액	성명	직위 및 주소	금액
양중호	담양군 수북면 죽재골길84	50,000	김상헌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심재영	표의사 별유사 (청송심씨선무공파)	50,000	김영길	서울 종친	50,000
진화섭	담양군 대전면 태목	50,000	안진우	황룡면장	50,000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5,000,000	고달석	장덕금속 대표 (산양회 감사)	100,000
김상하	하서학술재단 이사장	3,000,000	김영우	황룡면 화산공파	50,000
장성근		1,000,000	김용대	울산김씨 계파 도유사	100,000
김인수	울산김씨문정공도유사	500,000	김문진	울산김씨 장파	100,000
김재수	필암서원 산양회	500,000	김재승	신평파, 전 전남대 교수	100,000
반강진	장성군 노인회장	50,000	김상열	서울종친(자연당파)	100,000
문영수	장성향교 전교	100,000	김달수	대종회장	200,000
김재상	북이면 달성리 (신평파)	100,000	김상준	대종회 상근부회장	50,000
김재수	장성군 서삼면	50,000	김재수	울산김씨 광주종친회장	100,000
유관중	북이면 송계서원 도유사	50,000	김재수	산양회 편집주간	100,000
김문수	필암리 엠에스토피아 대표	200,000	변 원	봉암서원 도유사	50,000
양태호	제주양씨 소쇄원종중	300,000	심대섭	청송심씨 양계사 별유사	50,000
양태호	광주 광산구 수등로	50,000	김종갑	서수헌공 도유사	100,000
허태록	곡성 영귀서원	100,000	김상집	광주종친	50,000
오세인	초현관, 전 광주고검장	1,000,000	김관중	장파도유사	100,000
이종창	북이 죽림서원	50,000	김상윤	장성군 교육지원청장	100,000
문정희	울산김씨 문정희	100,000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50,000
김성수	필암서원 부도유사	100,000	김상로	서울종친	50,000
			김을수	장성종친회장	100,000

춘향제에 화환 보내주신 분

- 성균관장 김영근 •울산김씨 대종회장 김달수 •울산김씨문정공도유사 김인수
- 광주향교 모성회장 성원제 •광주향교재단이사장 최홍열 •광주향교전교 김남전
- 그레이스회원 김동원 •장성종친회장 김을수 •성균관유도회 광주본부장 김중채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기념행사 안내

친애하는 종친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하서 김인후 선생을 모시는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필암서원이 국가문화재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됨을 뜻하며,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영원히 보존관리됨을 뜻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쾌거입니까? 이는 실로 우리 울산김씨 온 문중이 모두 나서서 환호하고 경축해야 할 대경사요, 우리 가문의 역사에 찬란히 빛날 광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수백 년 만에 한번 있을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경축하는 기념식과 학술 행사와 경축행사를 문화재청, 장성군, 필암서원이 함께 최소한의 재정으로 계획하오니 우리 온 문중이 기쁜 마음으로 모두 나서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하서선생을 모신 필암서원이 세계유산등재라는 큰 경사를 맞이하여 본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번 성금모금에 참여하신 분은 앞으로 발간할 필암서원 세계유산 편람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행사 계획을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사업내용]

1. 기념행사 인증서전달식, 고유제봉행, 제향행사, 성독대회, 축하공연 및 부대행사
2. 학술행사 석학 초청강연, 학술발표(서원과 문화유산관리)
3. 기념사업 기념비제작(9개 서원 통일안), 홍보책자발간, 필암서원 자료집 발간 등

[사업비 모금 계획]

총 사업비 약 2억5천 원에서 3억 원 사이로 추정됨.

- 장성군 지원금 1억 원 확보
- 울산김씨 대종회 모금액 약 금 ? 봉
- 장파, 계파, 울산파 모금액 각 금 일 봉
- 문정공 대종중 모금액 약 7천만 원(운영위원회의결)
 - 문정공 각지파당 3,000,000원×10파=30,000,000원
 - 문정공 종중부담 30,000,000원
 - 지방 유력종친 10,000,000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종친께서도 모금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각 4파 도유사님께서도 모금에 적극 참여도록 권장하시고, 중파 운영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지파 분담금(3백만 원)을 시파문중과 협의 7월 31일까지 입금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금방법 ‘농협은행 351-0682-2904-63(필암서원 학술회)’ 통장송금 부탁드립니다.

성금 모금에 참여한 분은 소속파 성명 주소를 문자 등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영수증 발송 예정임)

2019년 7월 일

울산김씨 대종회 회장 김달수

울산김씨문정공 도유사 김인수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사업 세부내력

(단위 천 원)

일정		항목	예산액	내역	비고
2019년	7월	고유제 봉행	13,000	행사시작 제례행사(7.19)	서원 8. 19.
	9월	성독대회	6,000	향제시 경서강독, 학생 독서대회	서원 9. 16.
	4, 10월	제향행사	26,000	제향(춘·추향전국유립 초청)	서원 9. 17.
	10월	학술발표회	25,000	인문학강연 및 학술세미나	군
	10월	출판행사, 글짓기	19,000	필암서원 소책자 제작	서원
	4~10월	연구 자료집 발간	25,000	학술연구 및 자료집 발간	2020년까지
	10월	도서구매	16,000	「천명도」 필암서원 소책자 등 구입 및 배포	서원
	10월	기념식 행사	50,000	등재선포식, 축하공연 등	10. 15. 문묘종사일
	11월	기념비 제작	50,000	세계문화유산 기념비 문화청과협의	서원
	3~12월	운영비	20,000	운영비 10개월	
	계		250,000		

문정공 각지파 선금 모금 담당 운영위원

파명	책임자	파명	책임자	파명	책임자
종파	김진산	월평	김현수	화산	김재수
신평	김재승	회암	김병윤	각재	김상백
중평	김종환	자연	김재훈	맥동	김상돈

입금통장 농협 351-0682-2904-63(필암서원 학술회)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대회장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고문단			
성명	경력	성명	경력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김병의	울산김씨 대종회 상임위원
김상하	삼양그룹 회장	김양수	前 장성군수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김관중	울산김씨 장파 도유사
김동철	前 양영재단 이사	김평호	전남나주향교 전교
김정수	울산김씨 중앙상임 위원장	정환담	前 필암서원 산양회장
김진웅	前 울산김씨 문전공 도유사	김남전	광주향교 전교
김병건	동아, 꿈나무재단 이사장	문영수	장성향교 전교
김용숙	前 문정공 부도유사	김봉수	장성문화원 원장
김상표	울산김씨 대종회 고문	김을수	장성종친회 회장
김상렬	하서학술재단 이사	김재완	前 장성군의회의장
김병휘	삼양영업사 회장	김상용	주식회사 K.C 사장
김상국	모암장학재단 이사장	김동식	前 광주광역시 시의원
김용대	울산김씨 계파 도유사	김문진	울산김씨 대종회 고문
김종운	울산김씨 대종회 고문	김종근	前 금호고속 부사장
김치근	울산김씨문정공대종중 종손	양재익	재주양씨 종손
김동준	前 울산김씨 문정공 도유사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추진단			
분과	직위	성명	경력
총괄	집행위원장	김인수	울산김씨 문전공 도유사
	부위원장	김재익	하서학술재단 이사
	부위원장	김병준	하서출판사 사장
	부위원장	김상현	울산김씨 문전공 부도유사
	부위원장	김상협	울산김씨 대종회 사무총장
	간사	김진산	필암서원 별유사
	간사	김상원	문정공 총무유사
행사	분과위원장	김성수	문정공 부도유사
	분과위원	공영갑	前 장성문화원장
	분과위원	이충원	필암서원 산양회 총무
	분과위원	김만원	필암서원 집강
학술	분과위원장	김재수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분과위원	김용하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
	분과위원	김한식	필암서원 집강
	분과위원	김영길	울산김씨 대종회 간사
출판	분과위원장	박래호	필암서원 선비학당 당장
	분과위원	김병기	前 전남대 교수
	분과위원	김상백	문정친목회 회장
	분과위원	김상준	울산김씨 대종회 상임부회장
홍보	분과위원장	김승규	문정공 부도유사
	분과위원	김성	前 국회의장 비서관

- 2012년 3월 7일 춘향제, 초헌관 최상옥 회장 인사말
- 2012년 7월 4일 집성관에서 “하서 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박명희 박사(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 2012년 10월 3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박병호 원장 “하서 선생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강연
- 2012년 12월 2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정환담 학장 : “하서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 강연
- 2013년 3월 22일 춘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낙연 의원 “河西의 出處는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 강연
- 2013년 7월 1일 집성관에서 “동춘당과 우암의 하서 존승”, 김문준 교수 강연(건양대)
- 2013년 9월 30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정식(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한중 호남 문화 속의 악록서원과 필암서원 교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론
- 2013년 12월 1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 그가 만났던 사람들”, 고영진 교수 강연함.
- 2014년 3월 17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이성무 한국학술원 부원장,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 강연함
- 2014년 6월 25일 집성관에서 “청백리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강연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
- 2014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의 “하서의 철학과 복성부復性賦” 강연
- 2015년 4월 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뿌리회 이용규 전 회장 “강화학과 정신과 독립운동” 강연
- 2015년 10월 2일 추향제 올리고 박광순 학술원 회원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강연
-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오종일 전주대 교수 “하서 선생 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강연
- 2016년 3월 26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서 선생 <천명도 제사>의 우리말 해석에 대한 소견” 강연
- 2016년 7월 8일 집성관에서 김충호 훈몽재 산장 “도학의 원류와 하서 선생 도학시”로 강연
- 2016년 9월 12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고재유(전 광주광역시장) 인사말
- 2016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강연
- 2017년 3월 1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초헌관 정병석 전남대 총장 강연
- 2017년 7월 3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원광대 김봉곤 교수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절의와 도학” 강연
- 2017년 10월 15일 추향제 올리고 정운엽 초헌관 “하서 선생은 해동의 주돈이요 호남의 공자” 강연
- 2017년 12월 4일 광주향교에서 17회 정기총회 후 조선대 이종범 교수 “하서 김인후의 출처의리와 도학세계”란 주제로 강연
- 2018년 4월 5일 춘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정환담 학장이 “하서 사상의 사적맥락에 관한 고찰”이란 논제로 강연
- 2018년 9월 22일 추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김평호 나주향교 전교가 “유교에 대한 이해”란 논제로 강연
- 2019년 3월 21일 춘향제 올리고, 오세인 초헌관(전 광주고검장)이 “유학전통의 계승과 유림의 역할” 강연.

중용 제22 천하지성天下至誠 장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誠이라야 자기의 타고난 성性を 온전히 발현할 수 있다. 자기의 타고난 성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게 되어야 타인의 성을 온전히 발현케 할 수가 있다. 타인의 성을 온전히 발현케 할 수 있어야 모든 사물의 성을 온전히 발현케 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의 성을 온전히 발현케 할 수 있어야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다.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어야 비로소 천天和 지地와 더불어 온전히 일체가 되는 것이다.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중용 제23 기차치곡其次致曲 장

다음으로 힘써야 할 것은 치곡致曲의 문제이다. 그것은 소소한 사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극하게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소소한 사물마다 모두 성誠이 있게 된다. 성이 있게 되면 그 사물의 내면의 바른 이치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형상화되면 그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되면 밝아진다. 밝아지면 움직인다. 움직이면 변變한다. 변하면 화化한다. 오직 천하의 지성至誠이라야 능히 화할 수 있다.

其次致曲. 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爲能化.



慶 祝



필암서원 筆巖書院 세계유산 등재

우리 울산김씨 역사에 찬란히 빛날 광영이요
온 문중이 환호하고 경축해야 할 대경사입니다.

울산김씨 대종회장

장파 도유사

문정공대종중 도유사

계파 도유사

김달수

김관중

김인수

김용대

